

HUFS

Cover Story

제32회 세계민속문화축전

Special Theme

제2회 HUFS CFL
AMBASSADOR FORUM

HUFS Topic

강일갑(스페인어 79) Gloris, INC. 회장,
학교 발전기금 10만 달러 기탁

Inside HUFS

글로벌캠퍼스 네트워크 사업

A RENEWED 'WORLD TRAVEL', THE 32ND WORLD FOLK CULTURE FESTIVAL



세계가 원하는 경쟁력, HUFS에서 JUMP!



전세계 다양한 언어 문화 콘텐츠와 첨단지식의 융복합을 통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글로벌 창의융복합 인재를 양성합니다.
학생의 꿈이 자라고 성공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채원(네덜란드어 22)

조나단 음비(정치외교 20)

김동준(경영 21)



입학안내
02-2173-2500 <https://adms.hufs.ac.kr>



Global HUFS 2022 WINTER Vol. 117

제2회 HUFS CFL AMBASSADOR FORUM

SPECIAL THEME

02	Cover Story	제32회 세계민속문화축전
04	Special Theme	제2회 HUFS CFL AMBASSADOR FORUM
06	Theme Interview	한국외대의 특수외국어 교육 현장을 말하다 이은구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원장
12	HUFS Interview	외대의 발전과 성장을 염원하며 - 학교 발전기금 10만 달러씩 기부 박병철 Everest Trading Corp. 회장·무역(現 국제통상) 67 백창호 Nara Trading Inc. 회장·영어 72 Kevin S. Kim(김광성) Bank of Hope 은행장·영어 76 꾸준함이 가져온 결실 - 대한화학회 젊은 재료화학자 상 수상 박진균 화학과 교수 더 나은 삶을 위한 관심 - 2022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우수 프로젝트 경진대회 대상 수상 팀 빈센조!
20	Inside HUFS	글로벌캠퍼스 네트워크 사업 글로벌캠퍼스 정보통신팀 오재민 팀장, 정승운 차장 / HUFS Dorm 학사운영팀 최태경 팀장, 정향숙 차장
24	Global Memoirs	봉사 활동만이 아닌 소중한 성장의 기회 - 42기 월드프렌즈코리아(WFK) 청년봉사단' 참가 후기 이해원 프랑스어 21
26	I am HUFSan	사랑과 관심으로 이어온 시간 이성주 시설관리팀 과장

HUFS NEWS

30	HUFS Topics	강일갑 Gloris, INC. 회장, 학교 발전기금 10만 달러 기탁 제13회 Matthew D. Lee & Katherine H. Lee 장학금 수여식 가톨릭평화방송과 현장실습 관련 업무협약 한국외대 학생 대표단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 대학생 컴피티션' 대상 수상
34	HUFS Today	
38	HUFS Academies	
42	HUFS Professors	
44	HUFS Institutes	
46	HUFS Books	

ALUMNI & DONATION

50	HUFS Alumni
52	HUFS Donation

제32회 세계민속문화축전

한국외대 세계민속문화축전(World Folk Culture Festival, 이하 '세민전')이 9월 27일(화) 용인문화재단 죽전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됐다. 한국외대만의 특성을 살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세민전은 글로벌캠퍼스 국제지역대학, 동유럽대학, 통번역대학 소속 총 9개 세계민속문화 학회 학생들이 전공 언어, 문화권의 전통 음악과 민속 춤을 선보이는 행사로 지난 1971년에 시작돼 올해 32주년을 맞았다.



세민전은 그동안 홀수 해에는 교내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진행됐고, 짝수 해에는 2016년 강남역, 2018년 광화문 광장 등 학교를 벗어나 야외 공연장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올해에는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교내에서 진행해온 행사를 4년 만에 야외 무대에서 열었다. 세계 각국의 고유 민속 문화를 일반인에게 선보였고,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 속에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공연은 오케스트라 라이브 연주 속에서 학생들이 1년간 갈고 닦은 세계민속문화 공연을 '세계 여행'이라는 테마스토리에 따라 선보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칼리나(우크라이나어과) ▲오니로빠야(그리스-불가리아학과) ▲마주르카(폴란드어과) ▲로스호베네스(스페인어통번역학과) ▲라도스찌(러시아학과) ▲트웬보(아프리카학부) ▲폴카(체코-슬로바키아어과) ▲산다르(인도학과) ▲나빌레라(한국학과) 등이 참가해 다채롭게 꾸몄다. 1·2부 브레이크 타임에는 공연장 옆에 위치한 단국대학교 힙합 동아리 NRSC의 축하 공연이 어우러지면서 전통과 현대를 오가는 현란한 무대가 연출됐다.



제2회 HUFS CFL AMBASSADOR FORUM



한국외대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이하 '특교원')이 제2회 HUFS CFL 대사포럼을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HUFS CFL 대사포럼에는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13개 국가의 대사와 관계자가 참석해 문화 교류와 특수외국어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포럼 주제는 '문화 교류와 특수외국어의 역할'

제2회 HUFS CFL 대사포럼은 11월 10일(목) 서울캠퍼스 국제관 애경홀에서 개최됐다. 우리 대학 특교원은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13개 국가(몽골, 브라질, 스웨덴, 아제르바이잔, 오만, 이란, 이탈리아, 인도, 탄자니아, 태국, 튀르키예, 폴란드, 헝가리)의 대사와 관계자를 초청해 '문화 교류와 특수외국어(CFL, Critical Foreign Languages)의 역할'을 주제로 CFL 대사포럼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박정운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특수외국어 학과를 포함해 총 45개의 전문적인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한국외대는 98개국의 534개 대학, 65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융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글로벌 선도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외국어 사용 언어권의 사회문화적 감각과 소양을 갖춘 우수한 외국어 전문 인재를 창출하는 교육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한국외대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교원 이은구 원장은 기조 연설에서 "올해부터 2단계로 접어든 특수외국어 교육진흥사업에서는 대국민 서비스 확대, 전문 인재 양성, 국가 부처와의 협업 등이 다각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3개국이 참여한 이번 포럼을 통해 관련 국가들과 상호 협력 아래 국내 특수외국어 교육을 확산시키고, 양국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수외국어 사용 국가와 국내외 네트워크 공고히 해

HUFS CFL 대사포럼은 지난해 국내 특수외국어 교육 확산과 교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올해 제2회 CFL 대사포럼은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13개 특수외국어 사용 국가의 대사와 관계자가 참석했다. 포럼 1세션은 유럽-아프리카 지역, 2세션은 중남미 지역, 3세션은 중동-아시아 지역의 대사와 관계자가 참석했다.

1세션에는 István SZERDAHELYI 주한 헝가리 대사, Federico FAILLA 주한 이탈리아 대사, Piotr OSTASZEWSKI 주한 폴란드 대사, Johannes ANDREASSON 주한 스웨덴 참사관/공관차석, Togolani Edriss MAVURA 주한 탄자니아 대사, Mert TOKMAN 주한 튀르키예 일등참사관/공관차석이 참석했다. 2세션에는 Miriam LEITAO 주한 브라질 공사/공관차석이 자리했다. 3세션에는 Witchu VEJAJIVA 주한 태국 대사, Ramin HASANOV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 Amit KUMAR 주한 인도 대사, Hassan MOLLA JAFARI 주한 이란 일등참사관/공관차석, Erdenetsogt SARANTOGO 주한 몽골 대사, Zakariya AL SAADI 주한 오만 대사가 함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문화 교류와 특수외국어의 역할, 앞으로 나아갈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특수외국어 사용 국가들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특수외국어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제2회 CFL 대사포럼에는 국립국제교육원과 우리 대학 내 외국인 교수진, 학생들이 직접 참가했으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박정운
한국외대 총장



이은구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원장



류혜숙
국립국제교육원장

Session 1



István SZERDAHELYI
주한 헝가리 대사



Federico FAILLA
주한 이탈리아 대사



Piotr OSTASZEWSKI
주한 폴란드 대사



Johannes ANDREASSON
주한 스웨덴 참사관/공관차석



Togolani Edriss MAVURA
주한 탄자니아 대사



Mert TOKMAN
주한 튀르키예 일등참사관/공관차석

Session 2



Miriam LEITAO
주한 브라질 공사/공관차석

Session 3



Witchu VEJAJIVA
주한 태국 대사



Ramin HASANOV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



Amit KUMAR
주한 인도 대사



Hassan MOLLA JAFARI
주한 이란 일등참사관/공관차석



Erdenetsogt SARANTOGO
주한 몽골 대사



Zakariya AL SAADI
주한 오만 대사



이은구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원장

한국외대 특수외국어 교육 현장을 말하다

2018년 한국외대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이하 '특교원')이 문을 열었다.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특수외국어 교육을 이끌어가는 이은구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원장(이하 '원장')을 만나 특교원의 개원부터 현재까지 이야기를 들었다.

한곳에서 전 세계 언어를 교육하는 특별함

한국외대는 '특수외국어교육진흥에 관한 법률(2016년 제정)'에 따라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선정한 특수외국어교육진흥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2018년 특교원을 개원해 현재까지 활발한 사업과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은구 원장은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특교원의 수장을 맡아 특교원을 이끌어오고 있는 인물이다. 그에게 특교원의 개원 목표를 물었다.

“한국외대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은 특수외국어(Critical Foreign Language)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교육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입니다. 특교원은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교원에서는 특수외국어의 학부 교육 내실화, 전문 인력 양성,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특수외국어 관련 대국민 교육 및 번역 사업, 교재·평가 문항·스마트 콘텐츠 개발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여느 대학과 다른 한국외대 특수외국어 교육의 강점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한국외대는 1954년 5개 언어학과로 개교한 이후, 현재 45개 외국어를 교육하는 전문화된 외국어 교육 기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선도해오고 있는 점이 여느 대학과 차별점입니다. 한국외대는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모든 기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90여 곳의 전 세계 주요 교육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동문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수외국어 교육에 최적화된 국내 유일의 대학이라고 자신합니다.”

교육부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전문 교육기관 총 16개 언어 20개 학과

언어	학과	언어	학과
 네덜란드어	네덜란드어과	 힌디어	인도어과 인도학과
 마인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우즈베크어 카자흐어	중앙아시아학과
 몽골어	몽골어과	 태국어 라오스어	태국어과 태국어통번역학과
 포르투갈어	브라질학과 포르투갈어과	 터키어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스웨덴어	스칸디나비아어과	 이란어	페르시아어이란학과
 스와힐리어	아프리카학부	 폴란드어	폴란드어과
 이탈리아어	이탈리아어과, 이탈리아통번역학과 이탈리아 EU전략 세부모듈(융합인재학부)	 헝가리어	헝가리어과

Theme Interview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

특교원의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은 올해 2단계로 접어들었다. 현재 진행 중인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2단계에서는 20개의 언어가 선정됐다. 특교원은 20개 학과에서 16개의 특수외국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단계 사업(2017~2021)의 주요 목표가 전문 인재 양성, 교육 저변 확대였다면, 올해부터 시작된 2단계에서는 1단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국민 통역 및 번역 서비스, 대국민 맞춤형 교육 기회 제공 사업에 중점을 둔다.

“2단계에서는 교육이나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언어별 전문 인재 양성을 지속함과 동시에 부처 협업을 통한 대국민 특수외국어 교육, 번역 서비스 사업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요구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분야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교원 개원 이후 1단계 사업을 거쳐 2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룬 성과가 무척 많다. 그중 이은구 원장이 첫손에 꼽는 성과는 무엇일까. 이은구 원장은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에서 특수외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과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가장 우선에 둔다고 전한다. 그중에는 교재 개발이 있다.

“배우고 싶은 이들이 수준별로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 교재를 개발한 것을 지금까지 과정 중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꼽고 싶습니다. 15개 언어별 표준 교육 과정, 기본 교재, 평가 문항을 유럽 언어 공통 기준에 맞춰 개발·보급했고, 올해 신규 언어로 추가 지정된 5개 언어도 시행 중입니다. 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어휘 학습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스마트 콘텐츠 개발이 기억에 남는 성과입니다.”

CFL 대사포럼은 협력과 소통의 장

특교원은 지난 11월 11일, 특수외국어 사용 13개국이 참여한 CFL 대사포럼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지난해 1회 포럼에 이어 두 번째다. 제1회 CFL 대사포럼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포럼에서는 ‘특수외국어교육 확산과 교류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국 내 특수외국어 교육 확산을 위한 언어 교육 협력은 물론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CFL 대사포럼은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번 제2회 대사포럼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K-컬처의 확산으로 문화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문화 교류 측면에서 특수외국어의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한국과 특수외국어 지역의 문화 교류를 통해 각국의 정서와 감성까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2주간 예술 문화 주간을 마련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사진전, 영화제 등은 인근의 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은구 원장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해당 국가에 관한 관심과 애정으로 시작해 결국 문화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는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며 서로 협력하는 세상을 가져다줄 것이라 믿는다. 이런 맥락에서 특교원의 CFL 대사포럼 개최는 한층 의미를 더한다고 전한다.

“13개국의 대사님들과 함께하는 포럼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목적과 취지를 향하기는 여정에서 중요한 협력과 소통의 장입니다. 특수외국어 대사포럼은 각국을 대표해서 참석한 대사님들과 함께 한국에서의 특수외국어 문화 교류 활성화와 특수외국어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를 통해 기관, 대학, 각 국가간 활발한 교류의 장이 활성화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과 관련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에서 특수외국어의 역할과 가치를 재평가하고 재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외국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서 더 이상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닌 국익과 안보를 지키는 전략 자산이다. 이런 측면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은 국가의 주요 전략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이은구 원장의 생각이다.

특히 수출 기반의 경제 구조를 갖춘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전문가 양성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도 직결된 문제다. 나아가 해당 지역과 교류 및 협력을 원하는 민간 부분에서도 특수외국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는 앞으로 특수외국어 교육의 확장성은 더욱 증대할 것으로 여긴다. 원장으로서 그의 포부가 남다른 이유다.

“특수외국어 교육은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가 안보 차원 등에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을 배경으로 특수외국어 교육에

CFL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한국외국어대학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한국외대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은 약 4천 5백 명의 특수외국어 전공 학생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앞으로 특교원이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현지 문화와 지역의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한민국 최고이자 최대의 교육기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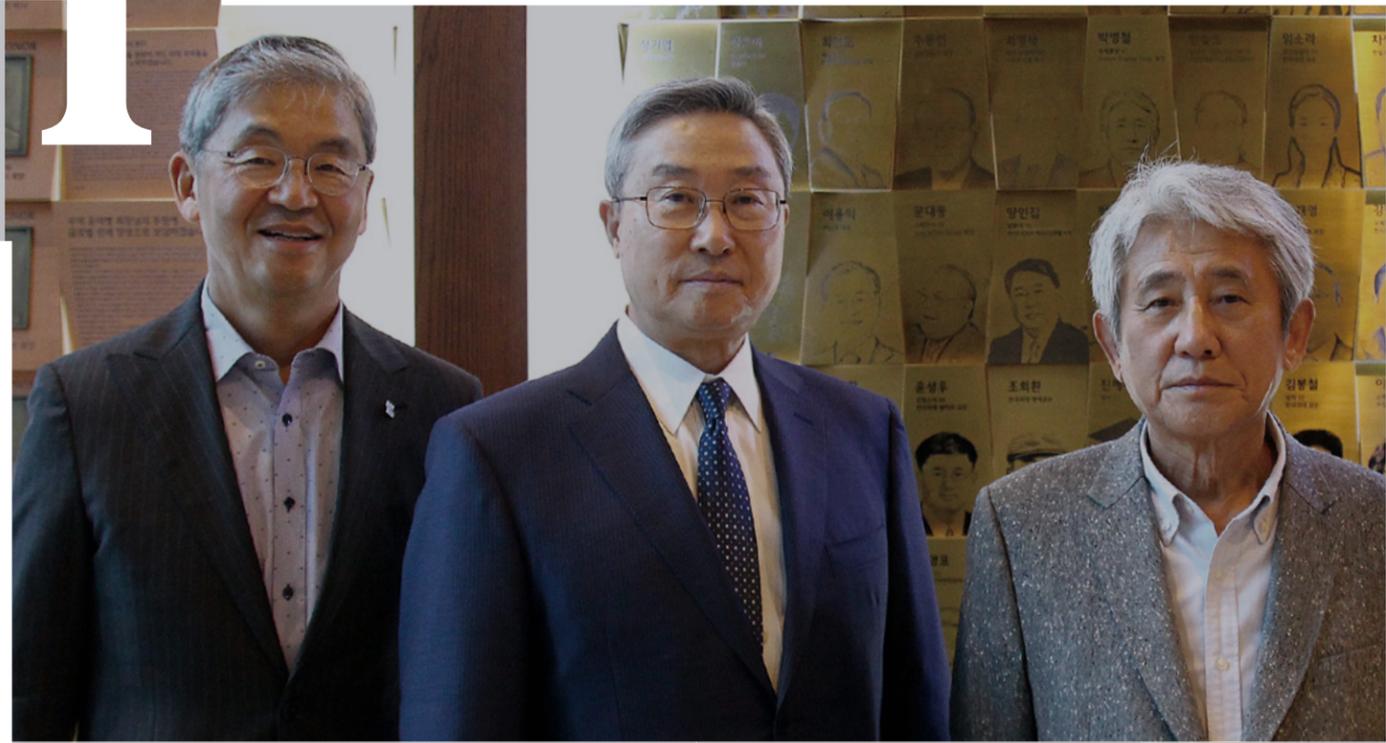
특교원에서는 최근 특별 프로그램인 HUF to the CFL World 해외취·창업공모전을 진행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학생들이 CFL 해외 현지의 기업과 산업체를 방문하며 취업과 창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특별 공모전이다. 210명의 학생이 지원했고 2~5인 팀으로 구성된 65명이 최종 선발됐다. 국내 교육도 중요하지만, 해외 현지에서의 취·창업탐방활동을 통해 글로벌 역량과 해외지역 산업전문가로서의 지식습득 및 취·창업역량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터뷰를 마치며 이은구 원장은 특교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학교나 교직원, 학생, 동문 등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2016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됐습니다. 여기에서 ‘특수외국어’란 국가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특교원의 사업은 연속성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 합니다. 특교원의 성장을 위해 고민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H

U



HUFS INTERVIEW

외대의 발전과 성장을 염원하며

박병철 Everest Trading Corp. 회장 · 무역(現 국제통상) 67

백창호 Nara Trading Inc. 회장 · 영어 72

Kevin S. Kim(김광성) Bank of Hope 은행장 · 영어 76

꾸준함이 가져온 결실

박진균 화학과 교수

더 나은 삶을 위한 관심

팀 빈센조!

김윤정 그리스 · 불가리아 17

박현진 체코 · 슬로바키아어 20

정예린 정보통신공학 19

박선홍 팀장 국제통상 17

박영웅 TESOL영어학전공 15

이정민 컴퓨터 · 전자시스템공학 20

조석류 언어인지과학 18

F

S



외대의 발전과 성장을 염원하며



지난 10월 31일(월) 미주 동문 박병철 Everest Trading Corp. 회장, 백창호 Nara Trading Inc. 회장, Kevin S. Kim Bank of Hope 은행장이 가족과 함께 모교를 방문해 학교 발전기금 10만 달러씩을 기부해 눈길을 끌었다. 박병철, 백창호, Kevin S. Kim(김광성) 동문에게 학교 발전기금 기부 소회와 후배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을 들어보았다.

모든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박병철 Everest Trading Corp. 회장·무역(現 국제통상) 67

- **학교 발전기금으로 1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기부를 결정한 계기와 소회를 들려주세요.**

학교 발전기금으로 10만 달러를 기부한 계기는 살면서 모교에 무언가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과 관련 있습니다. 저는 나이 들면서 학교에든 사회에든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지니고 살았습니다. '내가 1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발전기금으로 기부해 학교가 기부금을 잘 활용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할 수 있어 마음이 참 기쁘고 좋습니다.

- **외대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외대 입학할 때 재수를 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가고 싶은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군대 다녀오고 복학해 학교 생활을 하다 일본 무역회사 중 가장 큰 미쓰이 서울지점에 취직했습니다. 외대에 다녔기 때문에 취직할 수 있었고 이후 사회생활을 하다 Everest Trading Corp.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은 외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존재하는 것 같이, 제가 사회에서 활동하고 지낼 수 있었던 건 외대 덕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외대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부모님께 계속 효도하듯 세계 외대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학교입니다.

- **현재 이끌고 계신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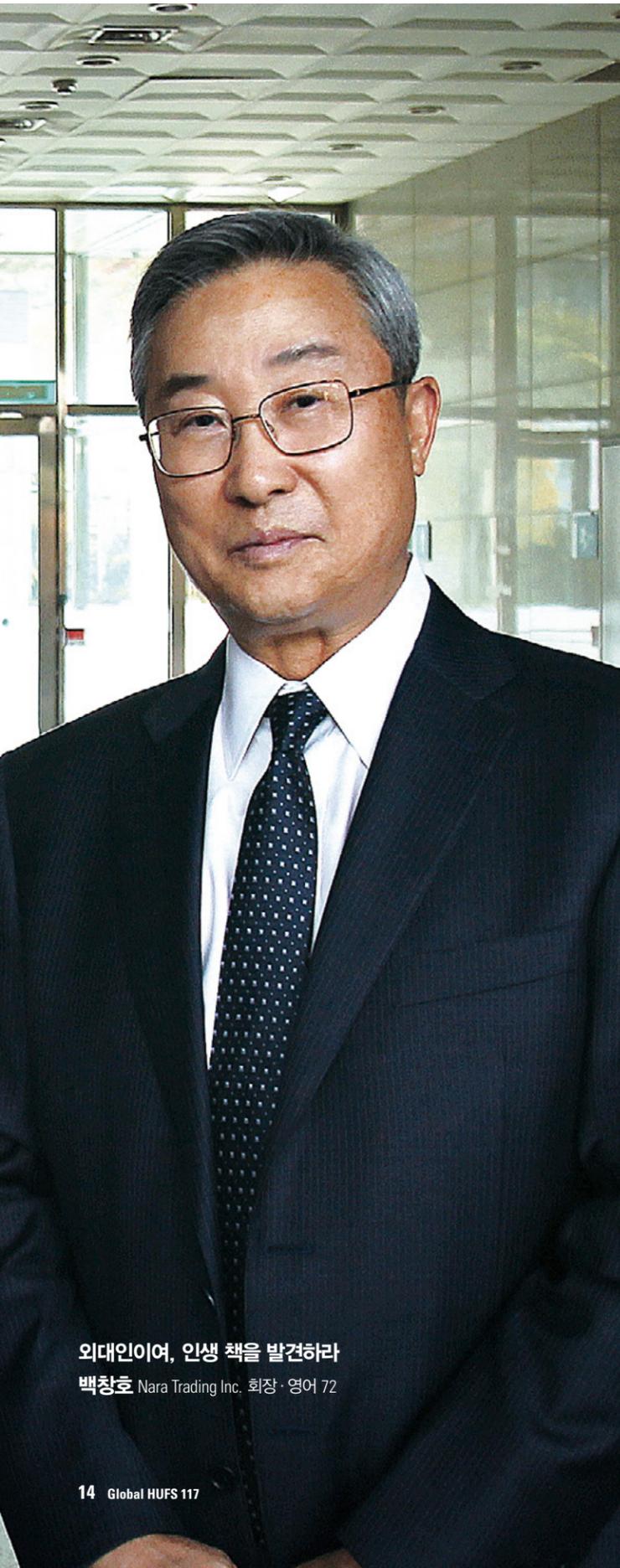
Everest Trading Corp.은 1982년 3월에 설립한 가방 제조·판매업체입니다. 우리 회사가 만든 가방은 미국 전역에서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 체인점과 백화점, 1천 개가 넘는 소매점에서 만날 수 있고, 아마존과 월마트 같은 온라인몰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백화점과 체인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외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세계는 지금 무척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외대가 IT 분야와 인공지능(AI) 분야 쪽으로 좀더 특성화되어 더 빨리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망한 산업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그 분야 인재를 배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글로벌 전문가가 되기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남과 비슷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남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공부든 연구든 해야 합니다. '어떻게 남과 다르게 하느냐'는 건 상황에 따라 스스로 연구, 판단, 행동해야 합니다. 여기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 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등산은 산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오르는 것이고, 마라톤은 골인 지점이 있습니다. 그곳까지 가려면 중간 중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고통이 따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배들에게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중간에 관두고 싶더라도 '올라가야 한다' '완주해야 한다'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버티기 바랍니다.



외대인이여, 인생 책을 발견하라
백창호 Nara Trading Inc. 회장 · 영어 72

● **학교 발전기금으로 1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기부를 결정한 계기와 소회를 들려주세요.**

약 10년 전 서울 방문시 이덕선 선배님의 학교 발전기금 기부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해 이덕선 선배님께 “저보다 14년 선배님이셔서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선배님처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14년 남았으니까요”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훌륭하시고 모교 사랑이 크신 분이 많아 닳고 싶었습니다. 박병철 선배님과 Kevin S. Kim 행장도 그 전부터 조금씩 기부를 하고 계셨는데, 이번 한국 방문길을 같이 계획한 후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 모두 모교의 환대에 크게 감동받았고, 모교에 대한 생각이 더 진해졌습니다. 저도 이덕선 선배님의 길을 따라 모교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 **외대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외대는 저에게 ‘운명적’입니다. 학교에 입학한 후 다양한 활동을 했고 많은 추억이 있지만, 그중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둘이 같이 미주 동문회에서 30년 넘게 활동한 기억은 정말 운명적이라 생각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LA)에서 16년 살고 뉴욕으로 넘어가 24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제가 동문이다 보니 LA에서 15년, 뉴욕에서 20년 넘게 함께 동문회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외대 우수 학생 미주 초청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LA에서 시작했다가 제가 뉴욕으로 넘어가면서 뉴욕에서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한국외대를 더 생각하고, 후배들을 사랑하고 베푸는 멋진 선배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현재 이끌고 계신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학교 졸업 후 대우에 입사해 셔츠 부문 영국 담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영국 지사로 발령이 났는데, 영국 바이어 측으로부터 LA 지사장 자리로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모두 영국행을 추천했는데, 저는 젊은 시절 도전할 기회라 생각해 LA로 갔습니다. LA 지사에서 근무한 지 2년 정도 지나 사업을 시작했고, 고급 셔츠를 포함한 어패럴을 생산하는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거래하는 공장이 중남미, 도미니카공화국, 중국, 베트남 등지에 있었고, 지금은 은퇴를 목전에 두고 천천히 사업을 정리 중입니다. 기존 거래처 중 저와 직접 거래하기 원하는 곳이 있어 컨설팅 및 업체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 **글로벌 전문가가 되기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업 초기 칠레 출장길에서 후에 제 인생을 바꾼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권오근의 『이래야 당신도 산다: 팔아라! 팔지못하면 죽나라!』입니다. 저자는 강의도 많이 하는 유명 마케터였는데, 저도 영업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책입니다. 저는 후배들에게도 ‘인생 책을 발견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식, 부동산 관련 책도 있지만, 힘들 때 나를 잡아주고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책을 접하고 인생을 설계하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배우면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
Kevin S. Kim(김광성) Bank of Hope 은행장 · 영어 76

● **학교 발전기금으로 1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기부를 결정한 계기와 소회를 들려주세요.**

한국외대를 졸업한지 벌써 42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외대 동문이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모교에 빚지고 있다는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제 아내가 외대 동문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학 4년 동안 훌륭한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졸업 후에도 동문이기 때문에 많은 좋은 분들과 인연을 맺고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비록 적은 액수의 기부금이지만 사랑하는 모교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 **외대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이문동에서 보낸 4년간의 대학 생활을 통해 세계화와 국제화에 눈을 뜨게 되었고, 앞으로 더 크고 광대한 세상에서 내 인생의 꿈을 펼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예민하고 순수했던 10대 말, 20대 초에 막연하게나마 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은사님들과 모교에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한 한국에 있을 때보다 외국에 살면 외대의 진면목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40년가량 미국에 살면서 외대의 많은 훌륭한 동문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었고, 같은 동문의 한사람으로 큰 자부심을 느낀 경우가 많았습니다.

● **현재 이끌고 계신 은행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LA에 본사를 둔 Bank of Hope는 1980년 설립되어 40년 이상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인사회 대표은행’입니다. 현재 미국 내 아시아-아메리칸 인구가 집중된 주요 시장을 포함한 미 전역에서 서비스망을 갖춘 슈퍼리저널 뱅크로 성장했으며, 미국 내 대표적인 아시아계 은행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9개 주(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텍사스주, 일리노이주, 뉴욕주, 뉴저지주, 버지니아주, 알라바마주, 조지아주)에 54개의 지점과 추가로 3개 주(오레곤주, 콜로라도주, 플로리다주)에 14개의 대출사무소를 운영하며, 개인 및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글로벌 전문가가 되기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전문가가 되려면 먼저, 본인에게 주어진 환경을 넘어서고자 하는 개인의 선택인 책임 의식이 필요합니다. 책임 의식을 가진 사람은 능동적인 노력을 하는데, 이러한 노력이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이것이 반복되면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선택의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하트마 간디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를 인생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배움에 대한 열정을 놓지 말고 끊임없이 배우면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포기가 아닌 극복을 삶의 습관으로 만들기 권합니다. 시련을 견뎌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무언가 배울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매사에 능동적으로 도전합니다.

꾸준함이 가져온 결실

- **2022년 대한화학회 젊은 재료화학자 상을 수상했습니다. 소감을 들려주세요.**

대한화학회는 고분자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생명화학, 유기화학, 의약화학, 재료화학, 전기화학, 환경에너지와 같이 총 10개의 분과로 이루어집니다. 각 분과 또는 전체 대한화학회는 매년 몇 가지 상을 수여해 과학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중 환경에너지, 전기화학, 고분자화학 분야를 제외한 7개 분과에서 매년 만45세 이하의 연구자 한명을 선발해 '젊은 과학자 상'을 수여합니다. 저는 대학원 재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재료화학 분과 및 분야에서 활동해왔기 때문에 제가 수여받은 '젊은 과학자 상'의 명칭이 '젊은 재료화학자 상'인 것입니다.

이 상은 제가 학생 시절부터 재료화학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여러 선배 교수님들과 국가 연구소 연구원님들을 보면서 꿈꿔왔던 상일뿐만 아니라, 저의 분야에서 그동안의 저의 연구 업적과 분과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무한한 영광과 기쁨을 느낍니다. 특히 이 상은 만45세 이하의 연구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여겨집니다.

- **젊은 재료화학자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진로를 고민하던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저의 노력과 연구 결과가 조금이라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열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연구에 도전했고, 그에 맞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연구적으로 같은 뜻을 가진 여러 연구진들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끈기 있게 혼자 달성하기 힘든 도전 과제에 대한 결과를 맺으려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저만의 장점을 알게 되면서 저의 고유한 연구 분야를 창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몸담은 분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 **재료화학 분야와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재료화학 분야는 이론 및 응용 화학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연구를 포함합니다. 때때로 어떤 연구 성과는 빠른 기간 내에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많은 경우 좀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재료의 잠재 가치를 찾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에너지·환경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연구도 포함됩니다.

저의 연구 분야도 이러한 물질에 대한 탐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단분자 및 고분자 물질이 눈에 띄는 고체상으로 나타날 때 보여주는 특성이 어떤 화학적 작용기와 관련 있는지를 탐구해, 유용한 성질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단분자 및 고분자 물질의 화학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실제로 합성할 방법을 연구해왔습니다. 또한 작은 화학 구조가 어떻게 눈에 띄는 크기의 응집체를 형성해 특정한 성질을 보이는지 탐구해 '화학 구조와 성질간의 관계'에 집중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 **재료화학 분야를 꾸준히 연구하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니까?**

재료화학 분야는 우리 사회의 필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학문 분야 중 하나입니다. 저의 재료화학적 호기심 또한 항상 사회적 요구에 부합되기 때문에 연구하고 공부한 것을 기반으로 사회에 공헌하려는 마음이 첫 번째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같은 뜻을 갖고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여러 연구진들과 제 연구실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원 학생들의 열정이 두 번째 원동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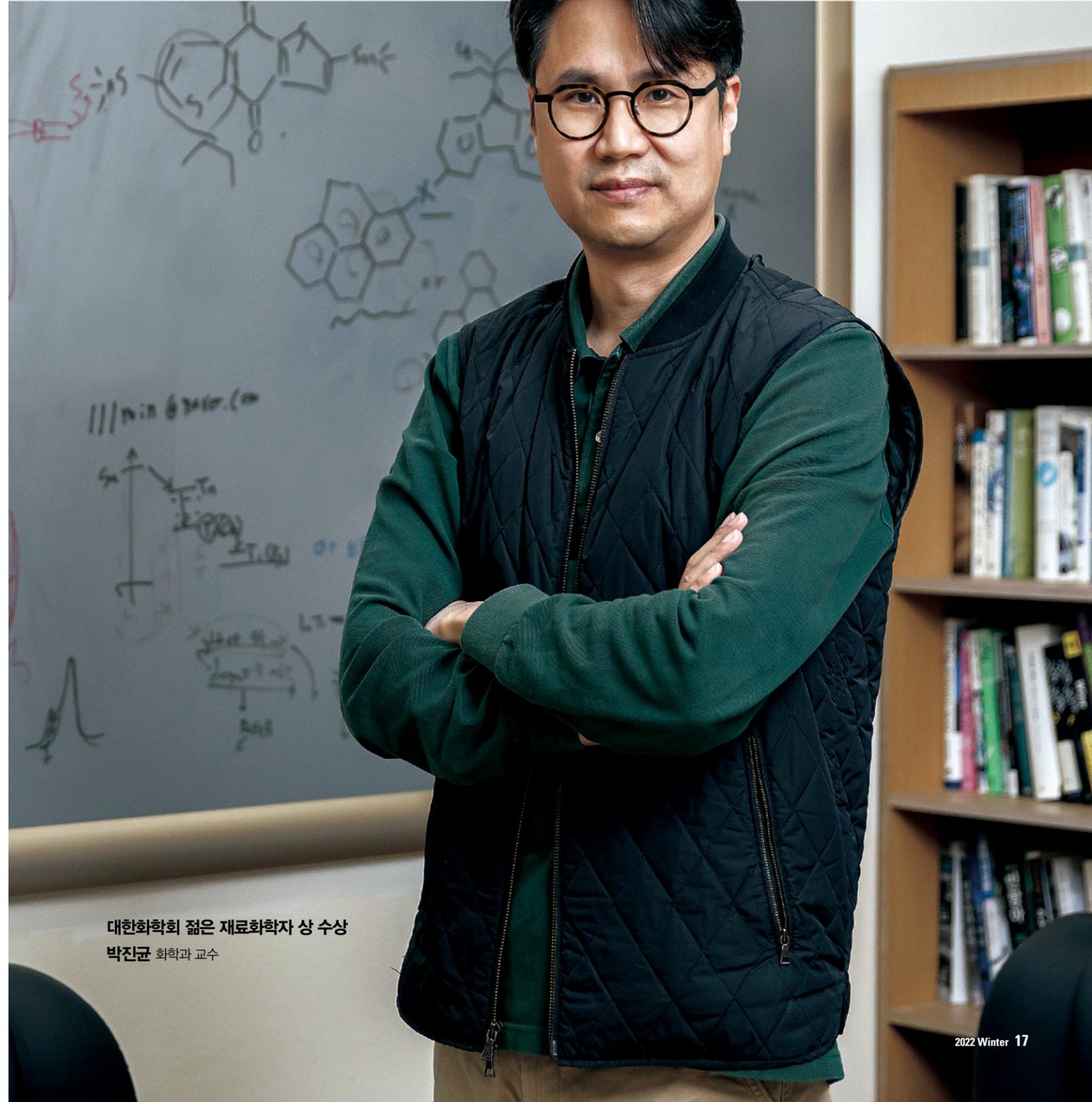
-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재료화학 분야도 공부해볼 만한 분야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대학 대학원에 진학해 같이 꿈을 키워나가기 바랍니다.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바른 정보를 수집하고 방향을 잘 설정해 끝까지 주저함 없이 실현해 나가기 바랍니다.

- **앞으로의 연구 계획을 들려주세요.**

중견 연구자의 나이에 저의 독자적인 연구 분야가 잘 갖춰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재직 기간 동안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학생들과 함께 더 활발한 연구를 진행해 상용화에 가까이 다가가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재료화학이 혁신적인 연구에 일조하는 하나의 분야라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한국외대 화학과 박진균 교수가 2022년 대한화학회 젊은 재료화학자 상을 수상했다. 젊은 재료화학자 상은 재료화학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아 다른 회원에게 귀감이 되는 젊은 우수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박진균 교수에게 재료화학 분야를 연구하는 의미를 들었다.



대한화학회 젊은 재료화학자 상 수상
박진균 화학과 교수

한국외대 팀 빈센조! 팀이 지난 9월 개최된 '2022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우수 프로젝트 경진대회'에서 '청각장애인 대상 영어발음 교정 서비스 BETTer'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박선홍 팀장 외 김윤정·박영웅·박현진·이정민·정예린·조석류 학생의 대회 참가 이야기를 전한다.



팀 빈센조! 2022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우수 프로젝트 경진대회 대상 수상

- 박선홍 팀장 국제통상학 17
- 김윤정 그리스·불가리아 17
- 박영웅 TESOL 영어학전공 15
- 박현진 체코·슬로바키아어 20
- 이정민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 20
- 정예린 정보통신공학 19
- 조석류 언어인지과학 18

더 나은 삶을 위한 관심

● **지난 9월 개최된 '2022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우수 프로젝트 경진대회'에서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소감을 들려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큰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모든 팀원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합심하였기에 더욱 뜻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 팀이 프로젝트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힘써준 많은 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각종 지원과 훌륭한 강의를 제공해주시고 학회 논문 작성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AI교육원 두일철 교수님, 오세종 교수님, 박민규 교수님, 발표와 기획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글나무 문선희 대표님, 프로젝트 중간 중간 많은 도움을 주신 김동현 조교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2달간 믿고 잘 따라와 준 저희 팀 빈센조! 팀원들에게 정말 수고 많았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 **'청각장애인 대상 영어발음 교정 서비스' 프로젝트를 제안해 주목받았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청각장애인 대상 영어발음 교정 서비스'의 정식 이름은 'BETTer'입니다. 영어로 '더 나은'이라는 뜻의 'better'와 한국어 '말을' '뱉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포함합니다. 저희 서비스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자신 있게 더 좋은 영어 발음을 내뱉을 수 있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 **BETTer 서비스에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무엇입니까?**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부분은 시각적 피드백과 학습 의욕 고취입니다. 이를 위해 제시된 영어 텍스트를 발음한 후 사용자가 발화한 음소의 정답 유무를 체크하고, 틀린 음소에 대해서는 정확한 발음 방법을 알 수 있게 음소 발음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발화음의 높이를 나타낸 그래프와 발음 강세 표기를 제시해 사용자의 발음에 대한 다각적인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목소리로 정답 텍스트 음성을 들려주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각장애인이 본인의 목소리로 생성된 정확한 영어 발음을 들을 수 있게 해 학습 의욕을 고취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 **대회 참가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박선홍 설계했던 서비스가 실제로 작동할 때 가장 큰 희열을 느꼈습니다. 프로그램을 짜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작동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최종적으로 생각한 대로 잘 작동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깨끗이 씻겨나가는 듯했습니다.

박현진 처음 PT 순간이 기억에 납니다. 기획자로서 제일 떨리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 상호 평가 때 아이템에 대한 공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이후 확신을 얻고 프로그램 구현에 힘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이정민 최종 프로젝트 결과물을 제출했을 때입니다. 대회 기간 동안 주제 선정부

터 구현까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 마감 기간 내에 무사히 제출하게 돼 안도감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정예린 웹으로 구현한 저희 서비스의 피드백 결과 화면이 처음 도출됐을 때가 기억에 납니다. 상상으로만 가능하다고 예상했던 것을 직접 실현해 서비스 화면을 마주했을 때의 뿌듯함이 컸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든 덕분에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대학 소프트웨어(SW) 전공교육 및 융합교육은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저희 팀은 문·이과 팀원이 섞여 있는데, 특히 AI융합 전공, 데이터사이언스 전공과 같은 이중전공을 겸한 팀원이 많습니다. 따라서 SW 전공교육 및 융합교육을 통해 컴퓨터과학 분야의 깊이 있는 지식을 얻는 동시에 각각 가지고 있는 본 전공 지식과의 시너지를 폭발적으로 낼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청년캠퍼스 교육과정 속에서 저희가 개발한 'BETTer'가 이러한 융합교육의 결정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 **앞으로의 목표나 꿈은 무엇인지 들려주세요.**

박선홍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차근차근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박현진 기술적 발전이나 데이터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접근성에 대한 평등을 구현하고 싶습니다.

이정민 대회 준비 중 서비스 구현을 하는데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앞으로 사회 문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정예린 남은 학부 시기 동안 학점을 관리하고 대외 활동에 참여해 실력을 쌓아나갈 것입니다. 미래에는 데이터를 활용한 웹이나 앱을 개발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정보통신팀 오재민 팀장

글로벌캠퍼스 네트워크 사업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정보통신팀이 3년간의 네트워크 통합 작업을 통해 학교 비용을 연간 7,600만원 절감해 눈길을 끌었다. 정보통신팀은 외부 사업자에 의존하던 기숙사 인터넷 서비스를 교내망으로 대체함으로써 학교 비용을 절감하고 인터넷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였다. 정보통신팀과 HUFS Dorm 학사운영팀에게 관련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다.

글로벌캠퍼스 정보통신팀 오재민 팀장, 정승운 차장
HUFS Dorm 학사운영팀 최태경 팀장, 정향숙 차장

교내 IT 서비스 개발 및 인프라 시설 관리

글로벌캠퍼스 정보통신팀은 학내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된 업무는 교내 IT 서비스 개발과 인터넷, 전화 등 인프라 시설 관리다.

“현재 저희 부서의 주 업무는 교내 IT 서비스 개발, 글로벌캠퍼스의 인터넷, 전화와 같은 인프라 시설 관리입니다. 2014년까지는 글로벌캠퍼스의 인터넷, 전화와 같은 인프라 시설 관리를 주 업무로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년간 학교, 기숙사, 기상사업단이 각자 운영해 오던 네트워크를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을 진행해 이번 여름에 완료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전산 시스템 개발 인력이 부서에 투입되어 학내 구성원들을 위한 다양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학교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기숙사인 HUFS Dorm의 입사 관리 시스템, 강사 채용 시스템, 전자 출결 시스템, 학생 상담 관리 시스템, 온라인 교육 시스템 등을 개발했습니다. 현재는 관제 시스템과 국제사회교육원 LMS의 개발에 부서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팀과 HUFS Dorm 학사운영팀의 긴밀한 협업

정보통신팀의 여러 업무 중 HUFS Dorm 네트워크 통합 작업이 두드러진다. HUFS Dorm 네트워크 통합 작업은 2019년에 처음 시작돼 단계적으로 진행했고, 지난 여름 마지막 작업을 완료했다.

“학교에서는 주로 주간에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반해, 기숙사에서는 학생들이 주로 야간에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 처음 이뤄졌습니다. 외국인 교원들이 생활하는 신기숙사 F동이 시작이었고, 방학 기간을 활용해 구기숙사인 D·E동, 신기숙사인 A·B동을 차례로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신기숙사 C동을 마지막으로 통합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HUFS Dorm 네트워크 통합 작업과 관련해 글로벌캠퍼스 정보통신팀은 학사운영팀과의 긴밀한 협업이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이 사업의 중심에는 저희 부서와 기숙사 학사운영팀 간의 긴밀한 협업이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방학 기간을 활용해 건물별로 통합 작업을 했는데, 이를 위해 방학 전에 기숙사 학사운영팀과 수차례 회의하면서 작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용 절감과 기숙사 학생들을 위한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동 목표가 없었다면 장기간의 사업 진행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학과 학생들은 이전보다 빠르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구성원의 요구가 해결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IT 서비스 제공 부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UFS Dorm 학사운영팀 정향숙 차장



정보통신팀 정승운 차장

글로벌 네트워크 통합 사업 3년 만에 완료

글로벌캠퍼스 정보통신팀의 HUFS Dorm 네트워크 통합 작업은 비용 절감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외부 사업자에 의존하던 기숙사 인터넷 서비스를 교내망으로 대체함으로써 학교 비용을 연간 7,600만원 절감한 것은 물론 인터넷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였다고 평가받는다.

“네트워크 통합 전 정보통신팀에서는 전문 인력을 통해 글로벌캠퍼스의 인터넷 망을 운영하고 있었고, 기숙사에서는 적지 않은 예산으로 외부 업체와의 별도 계약을 통해 기숙사 학생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신속한 통합을 통해 학교 예산을 절감하고자 다른 대학의 네트워크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대학에서 기숙사와 네트워크를 통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네트워크 환경의 불안정성, 네트워크 사용량 폭주 등)에서 자유롭기 위해 기숙사와 학교의 네트워크를 분리·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 저희 부서는 ‘단계적 통합과 통합 후 모니터링’이라는 접근법을 선택했고, 이를 통해 글로벌캠퍼스의 네트워크 통합 사업을 약 3년 만에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통합 작업은 기숙사에서 연간 7,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아울러 기숙사 학생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빠른(약 30% 속도 향상)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인터넷 장애 발생시 학교의 전문 인력이 바로 투입돼 신속하게 장애 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학교 자산 관리 관제 및 국제사회교육원 LMS 시스템 개발 중

정보통신팀은 현재 두 가지 굵직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하나는 학교 자산을 관리하는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그동안 외부의 관제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해 자산을 관리했으나 제품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아 더이상 운영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다른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던 중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해 저희 부서가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지난 6개월간 관제 시스템 개발을 진행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뿐 아니라 정보통신팀은 국제사회교육원 LMS 시스템도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외부 기업의 직무 교육을 주 사업으로 하는 국제사회교육원에서는 그동안 숙소 관리, 수업 관리 등의 업무를 수작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업무 효율 증대와 국제사회교육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저희 부서가 국제사회교육원의 업무 전반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지난 1년간 이뤄졌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교내 IT 서비스 제공할 것

정보통신팀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근 대학과 학생들은 이전보다 빠르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구성원의 요구가 해결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IT 서비스 제공 부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뷰 말미, 정보통신팀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에게 전하는 말도 덧붙였다.

“저희 부서는 그동안 주로 직원으로 지내면서 갖게 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직원과 다른 문제의식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점을 저희 부서에 알려주시면 좀더 열린 자세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HUFS Dorm 학사운영팀 최태경 팀장

이혜원 학생은 을여름 진행된 '42기 월드프렌즈코리아(WFK) 청년봉사단'에 참가했다. WFK 참가는 국제 개발 협력을 막연히 꿈꾼 자신에게 확신을 준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WFK 참가를 통해 소중한 성장의 기회를 얻은 이번 여름은 앞으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뜨거움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다.



'42기 월드프렌즈코리아(WFK) 청년봉사단' 참가 후기
이혜원 프랑스어 21

봉사 활동만이 아닌 소중한 성장의 기회

내 꿈은 세계를 무대로 일하는 것

중학생 때부터 막연하게 '세계를 무대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 그리고 이 사회 자체에 호기심이 많았다. 그 꿈은 고등학생이 되며 국제기구와 개발 협력 분야로 조금씩 좁혀졌지만, 여전히 막연함 그 자체였다.

확실한 동기가 없는 끌림을 '내 길'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외대에 입학했다. 꿈을 구체화하는 데 보다 자유로워져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추상적이었던 열정은 어 느새 회의감으로 바뀌었다. 이는 곧 '왜 이 길을 가고 싶어 했더라?'라는 물음으로 이어졌다.

그때 운명처럼 '월드프렌즈코리아 청년봉사단' 공고가 눈에 띄었다. 개발 협력 현장을 직접 느낄 수 있다면 꿈에 대한 확신이 설 것 같아 망설임 없이 지원했다. 지원 결과 캄보디아 A팀에서 함께할 기회를 얻었고, 6~8월까지 경험을 통해 '이래서 이 길을 가고 싶어 했구나' 하는 답을 얻으며 성장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적응 시간과 굳히기 시간

프로그램은 총 세 번의 교육과 본격적인 봉사 활동 시간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 교육은 적응 시간으로 2박 3일 동안 진행됐다. 이 시간에는 현지 언어 교육과 영상 교육 등 강의를 듣고, 처음 만난 팀원들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내가 속한 '캠퍼스'팀은 세 팀으로 나뉘어 캄보디아 대학생들과 함께 '캄보디아의 사회적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한국 문화 소개' 그리고 '캄보디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모의 창업 방안'을 담은 영상을 팀당 세 개씩 제작하는 활동을 계획했다. 영상 콘셉트 회의 과정에서 캄보디아의 사회 문제와 현황을 배울 수 있었는데,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실감 나며 더욱 책임감을 갖게 됐다.

두 번째 교육은 굳히기 시간이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두 번째 교육은 좀더 심화된 내용으로 봉사에 임할 수 있게 해주었다. 캄보디아에서는 수많은 과일이 제값에 팔리지 않아 버려지는데, 농부들이 그 경제적 타격을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내가 속한 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 캄보디아에 협동조합을 만들어 온·오프라인 마켓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캄보디아에는 협동조합이 많지 않기에 이 개념이 생소할 수 있다. 우리는 캄보디아의 협동조합 현황 등을 배웠고, 이를 통해 프로젝트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봉사 활동 기간은 성장의 시간 그 자체

세 번째 교육은 준비 시간이었다. WFK 봉사단 전체가 함께한 1, 2차 교육과 달리 3차 교육부터는 우리 캠퍼스팀만 모여 음원 제작, 영상 촬영을 진행했다. 이는 팀원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아주 소중한, 우리 프로젝트에 더 몰입하는 기회가 됐다.

캄보디아 학생들과 줌(Zoom)으로 여러 차례 회의하며, 함께 만드는 모의 창업 관련 영상의 콘티를 구체화했다. 모든 것이 순탄히 흘러가는 듯했으나, 캄보디아 학생들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회의를 통해 영상 콘셉트를 결정하고 나서 며칠 후, 캄보디아 학생들이 본래 만들기로 한 뉴스 형식의 영상을 만들기 어렵다고 한 것이다. 이미 영상 관련 회의를 여러 차례 한 후였기에 당황스러웠다. 이유를 물어도 제대로 된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할 따름이었다.

결국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상황을 물었더니 우리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정치적 색을 띠는 뉴스를 만들자고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다. 캄보디아는 문화 특성상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한다. 문화 차이를 이해한 우리는 그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없애고 보다 가벼운 느낌의 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상황을 해결했다. 처음에는 소통의 장벽을 느끼고 막막했지만, 갈등의 뿌리를 찾고 나니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12일 동안의 본격적인 봉사 활동 기간은 성장의 시간 그 자체였다. 끊임없이 캄보디아 학생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영상을 만들었고, 매일 프로젝트 매니저, 단원들과 활동 상황을 공유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새벽까지 영상을 수정했다.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은 현지와의 온라인 상영회 때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성공적인 결과를 냈다. 캄보디아 학생에게 '너무 고생 많았다'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우리'가 함께 만든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걸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모두가 서로의 조력자로 성장하다

이번 WFK 봉사단 활동에 참가하면서 개인적으로 에세이, 우수 교안, 모범 단원 부문에서 모두 수상하며 뿌듯하게 활동을 끝낼 수 있었다. 처음에는 비대면으로 짧은 기간 내에 영상으로 현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현지 학생들과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고, 영상 편집과 창업 아이디어 구상 등 색다른 경험을 하고, 사회 문제에 대해 토의한 이 모든 과정을 캄보디아 학생들이 소중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것이 괜한 걱정이었음을 깨달았다. 대면 활동 진행시 생기는 이동비와 식비, 쓰레기 등을 감안하면 비대면 활동만의 이점도 있었다.

이런 깨달음들은 국제 개발 협력을 막연히 꿈꾼 나에게 확신을 주었다.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돕고,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게 돕는 이 과정이 무엇보다 값지고 설레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처럼 국제 개발 협력 분야에 관심은 있지만 뭔가 명확하지 않다면 꼭 해외 봉사를 경험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비록 봉사 활동이지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이상의 배움을 얻을 수 있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으며, 누군가를 돕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의 경계 없이 모두가 서로의 조력자로 성장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간의 소중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묵묵히 땀 흘리며 정원을 가꾸온 예술가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켜낸 이들에게는 장인의 기쁨이 느껴진다. 주어진 임무를 책임감 있게 완수한 이에게서는 결코 흔들림 없는 뚝심이 묻어난다. 한국외대 시설관리팀 이성주 과장이 그렇다. 이성주 과장이 1998년 한국외대에 입사한 뒤 25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국외대의 사계절이 그의 손끝에서 피어났다. 곧 정년 퇴임을 앞둔 그를 만났다.

이성주 시설관리팀 과장

25년차 베테랑 조경 수목 관리사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곳곳에는 초록 식물이 자리하며 학업에 지친 우리를 위로한다. 여기에는 시설 관리 분야의 베테랑으로 통하는 시설관리팀 이성주 과장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있다. 그는 캠퍼스의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팀에서 조경 수목 파트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1998년에 입사해 2023년 2월 정년 퇴임을 앞둔 그는 서울캠퍼스의 오래전 모습까지 기억하는 한국외대 장기근속자다.

“눈 깜짝할 사이에 25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베테랑이라는 표현은 제게 과분합니다. 혼자 힘만으로 오늘날까지 업무를 지속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업무를 맡기 전부터 시설 관리 업무를 먼저 해온 분들이 있었고, 저는 그것을 이어 받아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성주 과장은 서울캠퍼스의 조경 수목 관리 중에서도 낙엽활엽수·상록수 등 관리, 관목 전지 작업, 잔디밭 제초, 식재 등 조경에 관련한 다양한 일을 도맡아 학교 이미지를 밝고 푸르게 만드는 데 힘을 보탤다. 이 중에서도 그가 각별하게 신경 쓴 분야는 수목 방제 작업이다.

“병충해로 아파하는 수목들을 예방하고 방제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며 일해왔습니다. 주기적으로 전지 작업을 하고 이후에 방제 작업을 해야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가장 예민하면서도 수시로 신경 써야 하는 분야이고, 세심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상록수의 근사한 모습은 보람이다

이성주 과장의 업무는 계절과 시간에 따라 나뉜다. 봄에는 거름을 주고 여름에는 제초 작업과 소독, 가을에는 상엽수 전지 작업 등을 진행한다. 매서운 겨울이 오기 전에는 월동 준비를 한다. 전체 수목의 소독은 1년에 세 차례 진행한다. 또 아픈 수목에는 소독과 약 처방, 수간주사를 맞히고, 건강한 수목은 병들지 않게 미리 예방 주사를 놓는다. 매해 똑같은 업무를 하지만 그에게는 매 순간이 의미 있게 다가왔다.

“수목은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한순간도 같을 수 없습니다. 또 수목은 관심과 애정을 많이 주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 모든 조건에 따라 수목의 표정이 달라지기에 제게도 매 순간이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외대에서 근무한 시절을 되돌아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일까. 그는 남다른 보람을 말한다.

“그간 있던 일을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시간상 그럴 수는 없겠네요(웃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상록수들의 변신하는 모습은 제게 큰 보람입니다. 상록수 가지 줄기가 자라날수록 모양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상한 가지를 치면서 모양을 점점 만들어가고, 캠퍼스 곳곳에 여러 상록수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은 들었지만 생각해보면 예술가가 된 느낌이었지요.”

자연이 우리에게 건네는 이로움

수목을 관리하는 이성주 과장의 일은 그의 집안에서 대물림된 일이다. 그의 아버지가 먼저 시작했고, 동생도 현재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덕분에 이성주 과장에게 조경 수목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스며들었다. 수목에 향한 그의 시선은 남다르고 오랜 사랑은 한결같다. 일에 대한 특별한 사명감을 갖는 건 물론이다.

“오랜 세월 같은 일을 해왔지만 여전히 이 일이 재미있고 일할 때 즐겁습니다. 사람은 아프면 말을 할 수 있지만, 식물은 아프고 힘들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을 하지 못하는 수목을 살피는 일은 무척 중요합니다. 또 변화하는 기후에 따라 면밀하게 관찰하고 수시로 신경 써야 합니다. 그에 따라 잘 관리를 해주어야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곧잘 짓밟는 삶의 장난에 지치고, 일상의 크고 작은 파도에 무너진다. 이때 초록 식물이 가득한 자연은 특유의 싱그러움 기운으로 마음에 위안을 불러넣는다. 인생의 피곤함과 울적함이 목울대까지 차오를 때 자연 속을 거닐다 보면 대부분 해결되고 작아지고 희미해지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성주 과장도 수목과 식물 등 자연에서 위로를 얻는다며 자연이 우리에게 건네는 이로움을 말한다.

“나무, 꽃, 풀은 늘 그 자리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합니다. 바쁜 일상을 지내느라 관심을 줄 여유가 없지요. 자연이 주는 고마움을 잊고 살기 쉽습니다. 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는 자연방향제 또는 자연향생제로 부를 정도로 우리 건강에 아주 유익합니다. 요즘처럼 공기가 미덥지 못한 시절에 식물은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데도 탁월하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어도 그저 좋은 게 자연입니다.”

늘 아끼고 사랑해주시길

캠퍼스 조경 수목 담당자로서 교수, 교직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캠퍼스 내 수목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당부한다.

“교내 수목과 잔디는 모두 학교의 재산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금세 시들고 아파할 소중한 생명입니다. 또 수목은 휴식 공간이자 학교 이미지입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직원, 교수님들께서 캠퍼스 내 자연을 늘 아껴주시고 존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년 퇴임을 앞두고 캠퍼스를 떠나려고 하니 지난 일들이 필름처럼 스친다.

“미네르바 동산에 있던 모든 수목을 캠퍼스 내 곳곳에 옮겨 심던 일, 가뭄이 심하게 들었던 어느 해 크게 마음을 졸였던 일, 담장을 허물 때 수목을 옮기던 일 등 캠퍼스 안에 자리한 모든 나무처럼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애뜻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맡은 바 일을 해온 이성주 과장. 지금도 온실에는 곧 다가올 졸업식과 입학식에 사용할 꽃이 향기를 뿜어내고 있다. 내년 봄에 캠퍼스 곳곳에서 존재감을 뽐낼 철쭉도 함께다. 길고 시린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이다. 올봄에는 그저 스쳐 지났던 캠퍼스의 꽃과 나무를 향해 잠시 미소 짓는 여유를 가져보자. 누군가의 묵묵한 손길을 기억하면서 말이다.

H

U



HUF S NEWS

[HUF S Topics](#)

[HUF S Today](#)

[HUF S Academies](#)

[HUF S Professors](#)

[HUF S Institutes](#)

[HUF S Books](#)

F

S

강일갑 Gloris, INC. 회장, 학교 발전기금 10만 달러 기탁

지난 9월 23일(금) 강일갑(스페인어 79) Gloris, INC. 회장이 학교 발전기금 10만 달러를 희사했다. 강일갑 회장은 지난 7월 미주 지역 동문회 방문 중인 박정운 총장을 만났을 때 모교의 미래 비전 달성과 도약을 향한 박 총장의 강한 의지를 느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에 직접 방문해 학교 발전기금을 기탁하며 모교 발전과 후배들의 더 나은 교육을 위한 힘이 되길 기원하고, 해외 동문들의 모교 발전기금 모금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일갑 회장은 “한 개인이 더 큰 목표를 갖고 이를 달성하려면 반드시 ‘교육’이 뒷받침돼야 하고, 모교 후배들이 외대 교육을 통해 꿈을 펼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따뜻한 인재로 성장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강일갑 회장은 우리 대학 스페인어과 졸업 후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 1999년 뉴욕에서 Gloris, INC.를 설립해 지금까지 경영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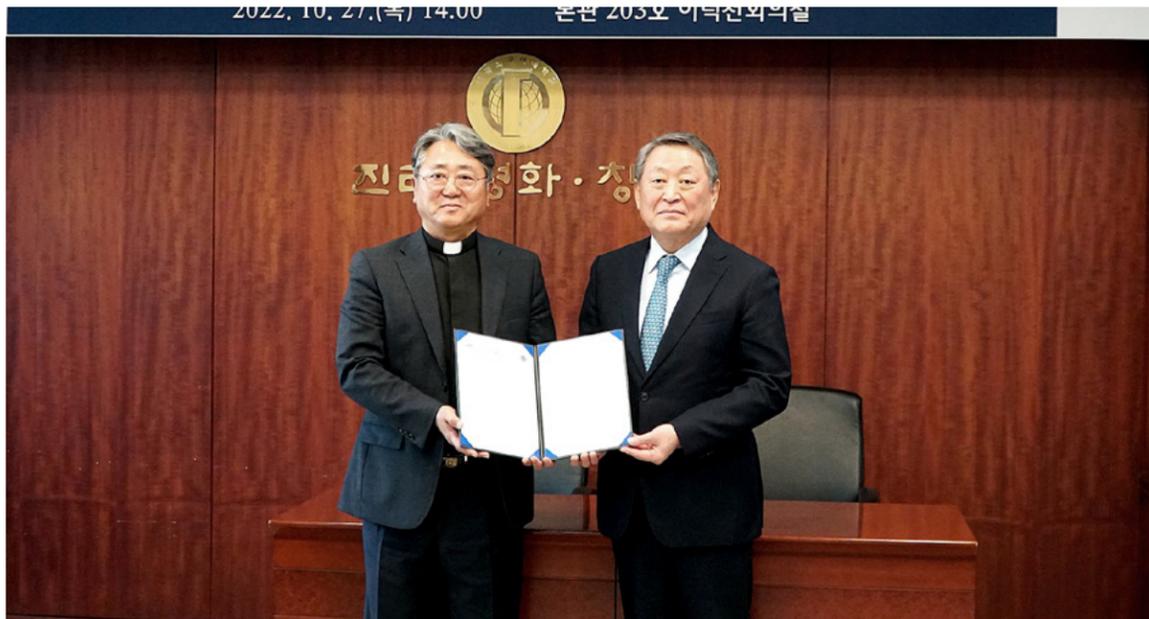
제13회 Matthew D. Lee & Katherine H. Lee 장학금 수여식

지난 10월 26일(수) 대학본부 203호 이덕선회의실에서 ‘제13회 Matthew D. Lee & Katherine H. Lee 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됐다. 박정운 총장은 “후배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멀리 미국에서 변함없이 장학금을 지원해주시고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사업가로서의 성취와 나눔의 철학은 ‘세계 속의 외대인’의 표본이자 ‘외대 가족들의 영원한 롤모델’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덕선 이사장은 “외대 가족들의 변함없는 환대에 감사드리며,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세계 환경에서 항상 미래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전 세계에 더 큰 영향력을 펼치는 대학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장학생들에게는 “개인이 성공하려면 사회인으로서 실력을 쌓음은 물론이고 타인에게 좋은 사람, 따뜻한 이웃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코로나19로 수여식을 개최하지 못했던 2020, 2021학년도 장학생들을 포함한 총 9명의 장학생이 참석해 장학증서를 수여받았다.



가톨릭평화방송과 현장실습 관련 업무협약

우리 대학은 재단법인 가톨릭평화방송과 지난 10월 27일(목) 대학본부 203호 이덕선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정준 대외협력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체결식에는 우리 대학 박정운 총장, 장태엽 재무·대외부총장, 장봉익 미래위원회 위원장, 오세홍 학생·인재개발처장(글로벌), 우리 대학 가톨릭교수회장인 신정환 교수(스페인어통번역학과)와 가톨릭평화방송 사장 조정래 신부, 성석호 기획운영본부장, 이로물로 콘텐츠제작본부장, 이정균 인사부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박정운 총장과 조정래 사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외대 학생들의 현장실습 운영 ▲가톨릭평화방송 임직원의 외국어 교육 등 양 기관의 장점을 기반으로 상호 발전에 협력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두 기관은 앞으로 실무 부서간 협의를 통해 협력 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국외대 학생 대표단,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 대학생 컴피티션’ 대상 수상

우리 대학 학생 대표단은 지난 8월 26일(금) 아산나눔재단 주최 ‘제1회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Asan Entrepreneurship Review, AER) 대학생 컴피티션’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 대학생 컴피티션’은 올해 처음 열린 기업가정신 케이스 공모전이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은 우리 대학 경영대학 서용원·이수현 학생, 컴퓨터공학부 박예진 학생으로 구성된 ‘케이스, 해봤어?’팀에게 돌아갔다. ‘케이스, 해봤어?’팀은 ‘힐링페이퍼’가 운영하는 미용 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의 ‘의료정보 투명화’라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다양한 경영학 이론을 활용해 분석했다. 이들의 대상 수상은 경영대학 전공 학회가 지닌 역량을 입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케이스, 해봤어?’팀의 지도교수인 윤원주(경영학부) 교수는 세 학생이 소속된 경영대학 쿼터 마케팅학회 QMS의 지도교수로 공모전 대상 수상에 기여를 했다.





GTEP(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사업단,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뷰티 박람회 참가
우리 대학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단장 백재승, 이하 GTEP사업단)이 8월 24일(수)~26일(금) 베트남 호치민 SECC에서 열린 '2022 코스모뷰티 베트남 화장품미용 박람회'와 8월 25일(목)~27일(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JI EXPO에서 열린 'K-뷰티엑스포 인도네시아 2022'에 참가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뷰티 열풍의 현장에서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국제 박람회 현장에서 무역 인재로서 맹활약했다.



캠퍼스타운사업단, 총학생회와 함께하는 창업 서포터즈 'BOO-UP' 1기 발대식
우리 대학 캠퍼스타운사업단(단장 김민정)은 8월 31일(수) 브릭스(BRICS) 화상 강의실에서 총학생회와 공동으로 캠퍼스타운 사업 프로그램 및 교내 취·창업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모집한 창업 서포터즈 'BOO-UP' 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1기 서포터즈는 총 8개 팀, 20명의 학생으로 구성됐으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캠퍼스타운사업단 및 교내에서 운영되는 취·창업 프로그램 홍보와 더불어 지역 상생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과 관련한 월별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2022학년도 1학기 정년퇴직 교원 정부 포상 및 명예교수 임명장 수여식
9월 13일(화) 서울캠퍼스 총장실에서 2022학년도 1학기 정년퇴직 교원 정부 포상 및 명예교수 임명장 수여식이 개최됐다. 지난 학기를 끝으로 퇴임하고 명예교수로 임명된 교원은 김차성, 김희철(이상 컴퓨터공학부), 민충기(경제학부), 박진우(경영학부), 연구석(터키 아제르바이잔어과), 이훈동(법학전문대학원), Kozawa Yasunori(일본언어문화학부) 교수다. 박정운 총장은 "재직하면서 학교 발전에 크게 공헌한 데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퇴직 교직원 공로패 수여식
9월 13일(화) 서울캠퍼스 총장실에서 퇴직 교직원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윤경욱 부처장, 강수경 과장, 김혜영 선생 등 퇴직 교직원의 재직 기간 학교를 위한 공로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공로패를 전달했다. 박정운 총장은 "재직하는 동안 학교를 위한 직원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퇴직 교직원 선생님들을 배웅하는 현장에 후배 직원들이 한데 모여 감사와 아쉬움의 순간을 나눴다.



본투글로벌센터(Born2Global)와 스타트업 글로벌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우리 대학은 9월 13일(화) 대학본부 11층 회의실에서 본투글로벌센터(센터장 김중갑)와 스타트업 글로벌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서울시캠퍼스타운 사업 유관 스타트업 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 본투글로벌센터의 해외 시장 검증 및 사업화 컨설팅 역량을 활용한 R&DB 서비스 분야 협력, 창업 기업 육성 프로그램 및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 협력, 해외 거점 구축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테니스동아리 연합 팀 '한국외대', 2022 국토정중앙배 전국 대학동아리 테니스 대회 입상
우리 대학 테니스동아리 연합 팀 '한국외대'가 8월 13일(토)~17일(수) 5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양구테니스파크, 정중앙테니스장, 남연테니스장(양구군 소재) 등 3곳에서 동시에 열린 2022 국토정중앙배 전국 대학동아리 테니스 대회에 참가해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우리 대학은 2020년 대회부터 연합팀을 구성해 1단식/2복식 구성으로 5명씩 한 팀으로 대회에 참가했으며, 올해는 서울캠퍼스 25명, 글로벌캠퍼스 16명, 총 41명의 대형 선수단을 구성해 출전했다.



2022학년도 1학기 HUFSAbility 학생 상담(지도) 우수 학과(부) 및 교원 포상
우리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9월 14일(수) 서울캠퍼스에서 2022학년도 1학기 학생 상담(지도)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이룬 학과(부) 및 교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학생 지도 상담 우수 학과(부) 서울캠퍼스 이라어과(학과장 윤은경), 글로벌캠퍼스 영어통번역학부(학부장 박정만), 학생 지도 상담 우수 교원 최우수(서울 이라어과 윤은경 교수, 글로벌 철학과 홍성민 교수), 우수(서울 인도어과 고태진 교수, 글로벌 영어통번역학부 이진아 교수), 장려(서울 포르투갈어과 임소라 교수, 글로벌 환경학과 정태용 교수) 등이다.



한국장학재단과 글로벌 근로 장학 프로그램 활성화 위한 업무 협약
우리 대학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과 9월 14일(수) 글로벌 근로 장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질의 글로벌 근로 기관을 발굴해 국제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경험의 기회를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행정, 자원, 홍보 등 다각도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외대 도서관, 산악인 엄홍길 대장 초청 강연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 스마트도서관(관장 조희문)은 9월 20일(화) 도서관 힐라이쿠스네트홀에서 '불굴의 도전 정신'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대표 산악인이자 우리 대학 석좌교수인 엄홍길 대장을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 엄홍길 대장은 세계 최초 히말라야 16좌를 완등하고 '히말라야가 나에게 정상을 허락하고 배운 것처럼 나누며 살겠다'는 마음으로 세운 네팔 오지 마을의 16개 휴먼스쿨 등 히말라야 고봉 등정 및 나눔의 경험을 주제로 강연했다.



글로벌캠퍼스 진로취업지원센터(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2022년 하반기 찾아가는 진로취업상담'
우리 대학 글로벌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처장 오세홍) 진로취업지원센터(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9월 19일(월)~22일(목) '2022년 하반기 찾아가는 진로취업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진로 및 취업 상담, 입사 서류 작성 및 면접 클리닉 등 학생들에게 유익한 내용으로 1:1 또는 그룹 형식으로 진행됐다. 재학생들의 진로취업지원센터 인지도 향상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및 정부청년고용정책 홍보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서울캠퍼스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찾아가는 진로취업상담 프로그램 운영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처장 김민정) 진로취업지원센터(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서울캠퍼스 가을 축제 기간 지난 1학기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찾아가는 진로취업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진로취업지원센터 부스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진로취업상담'은 9월 29일(목)과 30일(금), 이를 동안 200여 명의 학생이 진로와 취업에 대한 미니 상담과 이벤트에 참여하였다.



한국외대, 외교부 공동 주최 제11회 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
우리 대학 포르투갈어과(학과장 이승용)와 외교부, 한국브라질사이아어어가 공동 주최한 제11회 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가 9월 23일(금) 서울캠퍼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는 외교부가 외국어를 주제로 개최하는 유일한 행사로, 포르투갈어 전문 인력 양성과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9개국을 대상으로 공공 외교 증진에 크게 기여한다.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UCC 경연 방식을 도입해 참가자들의 창의성까지 아우르는 대회로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

우리 대학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주임교수 임대근)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9월 21일(수)~23일(금)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21세기, 문화콘텐츠의 세계를 향해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문화 콘텐츠 플리마켓, 메타버스 문콘서트 2022, 학생 총회, 특별 강연, 기념 학술대회, 기념식 및 자랑스러운 문콘인상 시상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는 '21세기 문화콘텐츠 연구와 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한국외대, 2022년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우수 프로젝트 경진대회 2관왕 대상·최우수상 수상

우리 대학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은 9월 23일(금) '2022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우수 프로젝트 발표 및 시상식'에서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최우수상(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을 석권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 대상은 '청각장애인 대상 영어발음 교정 서비스' 프로젝트를 제안한 '팀 빈센조(박선홍·김윤정·박영웅·박현진·이정민·정예린·조석류 학생)'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이미지 캡셔닝을 이용한 작물 질병 진단' 아이디어를 발표한 '팀 톨올별(이동민·오지환·장승호·이지환·류승기·양건안·김재원·정훈서 학생)'에게 돌아갔다.



국제학부, 2022학년도 2학기 김봉철 교수 장학금 수여식

우리 대학 국제학부(학부장 이승래)는 9월 30일(금) '2022학년도 2학기 국제학부 김봉철 교수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국제학부 김봉철 교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윤치연(국제학부 18학번) 학생과 타르마굴라신 감타누사(국제학부 20학번)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학부 이승래 학부장과 김봉철 교수가 참석했다. 이 장학금은 국제학부 김봉철 교수의 1억원 약정 기부금으로 조성돼 매 학기 국제학부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아랍어과, 제1회 학술제

우리 대학 아랍어과(학과장 윤은경)는 10월 6일(목)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주한 카타르 대사관 후원으로 학과 창립 57주년 기념 제1회 아랍어과 학술제를 개최했다. 학술제는 제1부 아랍학 관련 논문 발표 대회, 제2부 아랍어 말하기 대회, 제3부 골든벨 퀴즈 대회로 나누어 아랍어과 재학생 및 전공 과정 9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학술제를 후원한 Khalid Ebrahim Al-HAMAR 주한 카타르 대사는 아랍어과의 창립 57주년 기념 학술제 개최를 축하했다.



체코·슬로바키아어과, 제1회 말하기 대회

우리 대학 체코·슬로바키아어과(학과장 유선비)는 10월 6일(목) 글로벌캠퍼스 어문학관 206호에서 '제1회 체코슬로바키아어과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최됐고, 체코·슬로바키아어과와 체코공화국 대사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제1회 말하기 대회에 걸맞게 '체코어를 선택한 이유'를 주제로 체코어로 발표했고, 발표 후 체코어로 질문에 답하는 순서를 가졌다. 체코공화국의 구스타프 슬라메츠키(Gustav Slamečka) 대사가 직접 우리 대학을 방문해 참가 학생들을 격려했다.



페르시아어·이란학과, 한-이란 수교 60주년 기념 문화행사

우리 대학 페르시아어·이란학과(학과장 유달승)는 한국이란협회(이사장 천정배)와 공동으로 한-이란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10월 12일(수)~14일(금) '한-이란 수교 60주년 기념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이란 영화제, 이란 사진전, 페르시아어 말하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 1일 차인 12일(수) 열린 국제 학술대회에서는 'Korea-Iran Cultural Exchange and Korean Wave'를 주제로, 양국의 유구한 교류의 역사와 이란에 부는 한류 현상을 조망했다.



국제학부, 지사초등학교 캠퍼스 투어

우리 대학 국제학부(학부장 이승래) 학생들이 10월 27일(목) 여름방학 영어캠퍼스에서 만난 인연을 이어가 전북 임실군 지사초등학교(교장 김혜숙) 캠퍼스 투어를 진행했다. 지사초등학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베트남 수학여행 계획을 변경하면서 수학여행 일정 중 하루 동안 우리 대학을 방문했다. 인문과학관 1층 학생식당에서 함께 '학식'을 먹으며 시작된 이번 행사는 초등학생 멘티 4명과 대학생 멘토 1명이 한 조가 돼 캠퍼스 투어를 진행했다.



다문화교육원, 제10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우리 대학 연구산협력단 다문화교육원(단장 김재욱, 원장 채호석)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고 교육부와 LG가 주최한 제10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가 11월 5일(토) LG사이언스파크에서 개최됐다.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에는 올해 시도교육청 예산을 가진 51명의 초·중·등 다문화 학생이 참가해 나의 꿈, 학교 생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우리말과 중국어, 일본어, 아칸어, 다리어, 스리랑카어 등 부모 나라 언어로 발표했다.



폴란드어과, 주한 폴란드 대사관 공동 제12회 폴란드어 말하기 경연대회

우리 대학 폴란드어과(학과장 최성은)는 11월 9일(수)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주한 폴란드 대사관(대사 Piotr Ostaszewski)과 공동으로 '제12회 폴란드어 말하기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국과 폴란드의 위인 혹은 스타'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는 25명의 참가자 중 본선에 오른 10명의 학생이 결선 무대에서 열린 경연을 벌였다. 그 결과 대상의 영예는 폴란드어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유진 학생에게 돌아갔다.



우크라이나어과, '전쟁을 넘어 희망의 세계로' 학술제

우리 대학 우크라이나어과(학과장 홍석우)는 11월 11일(금) '전쟁을 넘어 희망의 세계로'를 주제로 2022년 우크라이나어과 학술제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제는 올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말하기 대회, UCC/단편 영상 제작 대회, 프리젠테이션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우크라이나의 도시, 문화 등의 주제로 진지하게 경연에 임했다.



융합인재학부 송민서 학생, 'KIMAF 2022: Peace Building and Sustainable Prosperity' 스피치 부문 입상

우리 대학 융합인재대학(학장 최진영) 송민서(이탈리아·EU전략세부모토 22학번) 학생은 11월 10일(목) 경희대학교 모의유엔 사무국 학술행사 'KIMAF 2022: Peace Building and Sustainable Prosperity'에서 러우 전쟁의 현황과 국제 기구의 역할을 주제로 한 스피치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 KIMAF 2022는 경희대학교 모의유엔 사무국 주관 하반기 최대 규모 학술 행사다. 송민서 학생은 "KMUN 2023 의정단으로 선발돼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랍어과, 박준용 주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대사와의 대화 개최

우리 대학 아랍어과(학과장 윤은경)는 11월 22일(화) 인문과학관 404호 강의실에서 박준용 주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대사를 초청해 학생들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1월 17일(목)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외교 현장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박준용 대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와 문화, 사우디 비전 2030과 네옴시티 프로젝트 등을 소개했다.

국제지역연구센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개편을 위한 포럼 참가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단장 강준영)은 9월 6일(화) 개최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개편: 국제질서 개편을 위한 새로운 접근' 포럼에 참가했다. 이번 포럼은 튀르키예(터키) 공화국 대통령실 대외홍보국이 주관했으며, HK+국가전략사업단은 한국 측 공동 주최자 역할을 수행했다. 이 포럼은 영국,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독일 등에서 개최됐으며, 이번 한국 포럼 이후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공동 국제 학술회의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단장 강준영)은 한국환경연구원(KEI) 북한환경정보센터 및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와 공동으로 11월 3일(목)~4일(금) 2022년 '집경과 환경: 탄소중립을 위한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모색'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개최된 이번 국제 학술회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네덜란드의 전문가들을 포함해 20여 명이 학자들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녹색 성장과 남북한 협력 등을 논의했다.



한-아세안센터 공동 '2022 아세안 청년 커리어 멘토십'

우리 대학 동남아연구소(소장 신근혜)는 10월 29일(토) 서울캠퍼스에서 한-아세안센터(사무총장 김해웅), 우리 대학 진로취업지원센터와 공동으로 '2022 아세안 청년 커리어 멘토십'을 개최했다. 한-아세안센터는 국내에서 학석사 과정 중이며 졸업 후 국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주한 아세안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아세안 청년 커리어 멘토십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취업 시장과 기업들에 대한 아세안 청년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제3차 HK(+연)합 학술대회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단장 강준영)이 주관하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메가아시아연구소(단장 박수진),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중국·화교문화연구소(단장 장정아),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신정환)이 공동 주최한 제3차 HK(+연)합 학술대회를 서울캠퍼스에서 개최했다. 연합 학술대회의 주제는 '초국적 협력과 소통을 위한 대한민국 외교 60년: 남방과 북방의 연결'이었다.



동남아연구소

정기 독회

우리 대학 동남아연구소(소장 신근혜)는 10월 25일(화) 교수회관 세미나실에서 대면 행사로 정기 독회를 개최했다. 이번 독회는 우리 대학 동남아연구소 초빙연구원 신지원 박사가 발제자로 나서 '인도네시아의 히잡 패션 열풍과 종교적 움직임'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지원 박사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히잡에 대한 담론과 히잡 패션의 변화에 대해 전달했다. 발표 후 질의 응답을 통해 히잡이 갖는 상징성과 히잡에 대한 연령별, 지역별 인식 차이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러시아연구소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경제연구소 공동 국제 학술회의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웅)는 10월 28일(금)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북방 정책 포럼 아홉 번째 행사로 '유라시아의 대전환과 한국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총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국제 학술회의는 제1세션 '러시아의 경제정책 전환과 한국의 전략', 제2세션 '국제질서 변화와 중앙아시아 경제, 한국의 전략', 제3세션 '러시아의 대외경제정책과 국내경제정책'이라는 주제로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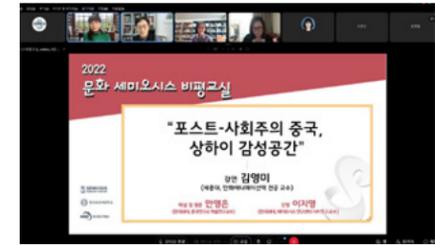
외교부 주관 2022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크 구축 사업 선정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웅)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외교부가 주관하는 '2022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양국의 주요 싱크탱크간 교류와 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해 12월 총 3차례의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는 다양한 분야별 한러 전문가들이 외교, 국제 안보, 세계 경제 등 분야별 세부 의제 논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을 강구하는 장을 마련한다.



2022 제4회 문화 세미오시스 비평 교실

우리 대학 세미오시스연구센터(센터장 서종석)는 10월 28일(금) '포스트-사회주의 중국, 상하이 감성 공간'이라는 주제로 제4회 문화 세미오시스 비평 교실을 개최했다. '현대 중국의 새로운 이미지 언어-미술과 영화'의 저자인 김영미 교수(세종대 소프트웨어대학)는 상하이에서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중국의 포스트-사회주의가 상하이의 도시 감성에 어떻게 녹아있는지 분석했다. 발표 이후 안영미 교수(중국연구소)를 중심으로 중국의 포스트 사회주의에 대한 심화된 토론이 이뤄졌다.



인도연구소

김해문화재단과 전문가 특강 공동 개최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원) 지역인문학센터 간디이슈룸은 9월 30일(금) 김해문화재단과 공동으로 '김해에서 인도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김해창업카페 세미나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김찬원 소장의 '간디(Gandhi), 세상을 바꾸다', 이거룡 선문대 통합의학대학원 교수의 '허황옥 루트를 재검토하다', 김태영 경남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의 '김해-인도 대표 인물 허황후 콘텐츠로 풀어내다' 세 개의 특강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제1회 세계아시아기호학회 국제 학술대회

우리 대학 세미오시스연구센터(센터장 서종석)는 10월 14일(금)~15일(토) 고려대학교에서 세계아시아기호학회, 고려대학교 응용문화연구소, 성결대학교와 공동으로 제1회 세계아시아기호학회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아시아 문화 연구의 초학제적 상상력: 아시아 기호학의 뿌리 찾기'라는 주제 아래 열린 제1회 세계아시아기호학회 국제 학술대회는 아시아 문화의 정체성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융합적으로 조망하는 학제간 연구의 장이었다.



융합인재대학

'2022 Ingenium-K Project' 창의융합 전문가 특강(6회차)

우리 대학 융합인재대학(학장 최진영)은 11월 16일(수) '모빌리티 인공지능 기술의 비즈니스 모델과 벤처 창업'을 주제로 '2022 Ingenium-K Project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 이 특강을 진행한 김원수 대표(주식회사 플릿툰 공동창업자)는 모빌리티 인공지능 기술의 비즈니스 모델과 벤처 창업에 관한 강의를 제공했다. 이 특강에는 80여 명의 융합인재대학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특강 후 강연자와 학생들간의 활발한 질의 응답이 이뤄졌다.



제4회 한국-인도 2030 포럼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원) HK+사업단은 11월 4일(금) '21세기 한국-인도 영(Young) 리더십과 미래 비전'이라는 주제로 제4회 한국-인도 2030 포럼을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한국과 인도의 중추인 각계의 2030 세대를 초청해 대화와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2030 세대로 구성된 총 47명의 한국과 인도의 연구자와 정치인, 언론인, 문화계 전문가, 학생들이 세 그룹으로 나뉘어 각자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를 갖고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ACSAS 국제 학술대회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 HK+사업단은 11월 18일(금)~19일(토) 서울캠퍼스에서 제5회 Asian Consortium of South Asian Studies(ACSAS)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인도연구소 HK+사업단의 아젠다인 '인도 대전환의 기저'라는 주제로 5개 패널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총 18개의 연구 주제가 발표됐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내외 학자들간의 교류를 공고히 함은 물론 한국 내 인도 및 남아시아 지역 연구에 대한 큰 관심을 가능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 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 초청 세미나

우리 대학 장모네 EU센터(소장 김시홍)는 11월 15일(화) 이덕선회의실에서 이탈리아 국제문제연구소 페르디난도 벨리 페로치 이사장을 초청해 '유럽의 도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2008년 재정 위기 이후 유럽이 겪고 있는 다중적 문제를 이민 난민 위기, 브렉시트,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지정학의 부활과 에너지 위기라는 차원에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학부와 국제지역대학원 석박사 과정생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

한-중남미 지속가능발전 국제 협력 민관학연 포럼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신정환)은 9월 16일(금) 서울캠퍼스에서 '지속가능발전과 생태 문명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안 담론과 실천 방안'을 주제로 한-중남미 지속가능발전 국제 협력 민관학연 포럼을 개최했다. 총 10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포럼에서는 지구 법학, 지속가능발전 정책, 인문 생태학, 신유물론, 동물권, 중남미 생태 문명, 생태 경제, 그린 경제 등에 관한 발표가 이뤄졌다. 포럼 영상은 중남미연구소 유튜브 채널 '빠차마마 TV'에 탑재되었다.



장모네 EU센터

외교부 및 주한 EU 대표부 공동 제주포럼 특별 세션

우리 대학 장모네 EU센터(소장 김시홍)는 9월 16일(금) 제주컨벤션센터 백록홀에서 외교부 및 주한 EU 대표부와 공동으로 제1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특별 세션을 개최했다. '한-EU 전략협력의 미래: 지역 협력, 경제안보 그리고 가치외교'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김시홍 소장과 홍규덕 교수(숙명여대)의 발표에 이어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 요아나 도나바르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중국연구소

한·중 수교 30년 2022년도 추계 정기 학술대회

우리 대학 중국연구소(소장 김현주)는 9월 24일(토) '한·중 수교 30년-왜 문화공정이라 하는가'를 주제로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문화공정'에 관해 한중이 갖고 있는 인식과 개념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재조명하고, 향후 서로 어떻게 이해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중국에서 사용하는 '공정'이라는 용어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을 촉구했으며, 양국이 문화 콘텐츠 교류를 통해 공동 문화 공간 향유 가능성도 제기됐다.



독도의 날 기념 국립생태원

'생태로 읽는 독도 이야기' 번역서 발행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신정환) 이하 사업단 지역인문학센터 '빠차마마'는 10월 25일(화) '독도의 날'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살려 국립생태원이 기획·제작한 「생태로 읽는 독도 이야기」(2018)의 포르투갈어 번역판을 발행했다. 「생태로 읽는 독도 이야기」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 번역서 제작은 한국의 인문 자산과 생태 자산을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해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대륙의 해당 언어권에 전파하기 위해 기획됐다.



중동연구소

제7차 콜로кви움

우리 대학 중동연구소(소장 유달승) 인문사회연구소사업단은 9월 19일(월) 교수회관 세미나실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제7차 콜로кви움을 개최했다.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콜로кви움은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윤용선 교수가 발제를 담당했다. 윤용선 교수는 '이주민 통합, 문화에서 경제로: 독일의 터키 이주민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독일 내 터키 이주민과 관련된 갈등을 경제적 관점에서 다뤘다.



인문사회연구 총서 발간

우리 대학 중동연구소(소장 박재원) 인문사회연구소사업단은 1차 년도와 2차 년도 성과를 모은 인문사회연구총서 시리즈 2권을 펴냈다. 본 사업단은 2020년 9월부터 '아랍의 봄과 이산(離散): 갈등·회합·공존'을 주제로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총서는 연구사업단의 첫 총서다. 총서 시리즈 1권은 「아랍의 봄 이후 정치지형과 법제도의 변화」이고, 총서 시리즈 2권은 「아랍의 봄: 인문학과 사회의 교차적 진화」다.



EU연구소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진행

우리 대학 EU연구소(소장 김봉철)는 9월 20일(화)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우리 대학의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EU연구소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 주제 등 학생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 이슈 및 현안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제주중앙여고를 졸업한 우리 대학 재학생들이 학교를 찾은 후배들과 함께 '도전! EU 골든벨'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육군대학 초청 전문가 특강

우리 대학 EU연구소(소장 김봉철)는 10월 11일(화)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330호에서 육군대학 장교 12명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김봉철 소장의 환영사와 우리 대학 및 EU연구소에 대한 소개로 시작한 이번 프로그램은 EU연구소 신의찬 책임연구원의 '유럽통합과 유럽연합(EU)의 발전' 특강, EU연구소 양우진 선임연구원의 '한국의 방위산업과 유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폴란드' 특강을 진행했고,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EU연구소-법학연구소,

한국해법학회 2022년 가을 학술발표회 공동 개최

우리 대학 EU연구소(소장 김봉철)와 법학연구소(소장 최승필)은 11월 10일(목) 서울캠퍼스 도서관 힐라아쿠슈네트홀에서 한국해법학회(회장 윤석희 변호사)와 공동으로 2022년 가을 학술발표회와 이사회 및 제2회 한국해법학회 학술대상(해인상) 시상식을 함께 진행했다. '해법에 관한 최근 국제동향'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자 선하 증권에 관한 국제 동향, 해운 기업의 ESG 경영과 관련된 국제 동향, 극지역 운항 선박에 관한 법적 동향 등이 논의됐다.



LD학부

외교관 초청 특강 '어서와, 외교부는 처음이지?' 개최

Language&Diplomacy학부(학부장 김진아, 이하 LD학부)는 9월 27일(화)부터 10주간 총 5회에 걸쳐 외교관 초청 특강 '어서와, 외교부는 처음이지?'를 개최했다. 9월 27일(화) 제1회 군축비 확산 막은진 과정을 시작으로, 2회 개발 협력 박지숙 과장, 3회 국제 안보 김수라 과장, 4회 국제법 이자형 과장, 5회 인권 사회 황형이 과장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전문 외교관들의 강좌가 LD학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교 분야에 관심 있는 우리 대학 학생(대학원생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HUFS Professors



**채희락 언어인지과학과 교수,
한국연구재단 '2022 우수학자' 선정**

우리 대학 언어인지과학과 채희락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의 '2022 우수학자'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채희락 교수의 연구 과제는 '영어와 한국어 통사 현상의 규칙성과 불규칙성'이다. 양 국어 통사 현상에 존재하는 규칙성의 정도를 수식어-피수식어 표현 등의 규칙성이 큰 것부터 언어/속어 표현 등 규칙성이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성을 파악하고 관련 현상을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다. 채희락 교수는 올해 9월 1일부터 5년 동안 매년 5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우수학자 지원 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이 인문사회 분야 우수학자 지원을 통해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고 후학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윤은경 아랍어과 교수, 킹 살만 아랍어학술원
세계 아랍어 교육상 수상자 선정 및 킹 살만
아랍어학술원 세계 아랍어 교육 공로상 수상**

우리 대학 아랍어과 윤은경 교수는 사우디아라비아 킹 살만 아랍어학술원에서 수여하는 세계 아랍어 교육 분야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킹 살만 아랍어학술원은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 중점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9월 설립된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원 중 하나다. 올해 처음 제정된 킹 살만 아랍어학술원 상은 아랍어 교육 분야와 아랍 언어학 연구, 아랍어 전산화, 언어 인식 보급을 위한 창의적 활동 등 4개 분야 개인/단체 부문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했다. 윤은경 교수는 이중 아랍어 교육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업적과 교육 활동, 국내외 아랍어 및 아랍 문화 관련 활동 등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비 아랍인으로는 유일하게 개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진균 화학과 교수,
'대한화학회 젊은 재료화학자 상' 수상**

우리 대학 화학과 박진균 교수는 지난 10월 19일(수)~21일(금)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제130회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 전시회에서 젊은 재료화학자 상을 수상했다. 대한화학회 젊은 재료화학자 상은 45세 이하 재료화학 연구자 중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박진균 교수는 지난 10월 22일(토) 수상 기념 강연에서 우리 대학 화학과 임용 후 끊임없이 연구해왔던 이차원 유기물질의 물성과 기능을 제어하는 방법 'Method for Controlling Properties and Functions of Organic Two Dimensional Materials'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윤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2022 한국광고홍보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우리 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정윤재 교수와 김현정 박사는 지난 11월 19일(토), 선문대학교에서 열린 2022 한국광고홍보학회 가을철 정기 학술대회에서 '2022 한국광고홍보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정윤재 교수는 한국광고홍보학회에 게재한 'DEA모형을 이용한 국내 주요 광고주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비 효율성 연구' 논문으로 우수논문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지난 1년간 해당 학술지에 발표된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광고 홍보 관련 국내 최대 규모의 학회인 한국광고홍보학회에서 구성된 학술상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국내 광고 및 PR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 논문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대근 융합인재학부 교수,
한국영화학회 차기 회장 선출**

우리 대학 융합인재학부 임대근 교수는 지난 11월 26일(토)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영화학회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겸 정기총회에서 차기(제2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대근 교수는 향후 2년간 한국영화학회 수석부회장 겸 편집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 후 차기 회장에 취임하며, 임기는 2025년부터 2년이다. 임대근 교수는 한국외대 대학원에서 중국 영화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중화권 영화 및 한-중 영화 교류, 아시아 영화와 문화 콘텐츠 분야의 연구 및 교육, 대외 활동을 계속해 왔다. 현재 우리 대학 대만연구센터장, 융합인재연구센터장을 비롯해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한국문화콘텐츠비평협회 회장,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콘텐츠연구소 대표, 전주국제단편영화제 조직위원장, 학교법인 청강학원 이사 등의 직무를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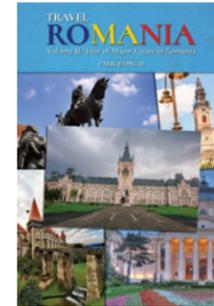
HUFS Professors

교수 출간



**박정오 루마니아어과 교수,
'Travel ROMANIA, The Garden of the Blessed Mary, Volume 1', 'Travel ROMANIA, Tour of Major Cities in Romania, Vol 2' 출간**

우리 대학 루마니아어과 박정오 교수는 지난 10월 17일(월) 'Travel ROMANIA, The Garden of the Blessed Mary, Volume 1'(Kindle, Paperback)을 아마존에 출판했다. 박정오 교수는 지난 2월 신간 '교황이 극찬한 '성모 마리아의 정원', 루마니아 여행'을 통해 루마니아 기본 정보와 주요 도시, 자연환경 그리고 음식 문화 등을 중심으로 루마니아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종교와 신화, 역사 등 루마니아의 모든 분야를 다룬 바 있다. 박정오 교수는 또한 11월 28일(월) 'Travel ROMANIA, Tour of Major Cities in Romania, Vol 2'(Kindle, Paperback)를 출판했다.



**임소라 포르투갈어과 교수,
브라질 독립 200주년 기념 '동 카즈무후' 출간**

우리 대학 포르투갈어과 임소라 교수가 역서 '동 카즈무후'(휴머니스트)를 출판했다. 브라질 독립 20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이번 번역은 브라질의 대문호이자 심리 소설의 대가인 마샤두 지 아시스의 대표작이다. 국내 초역이며 아시아권 언어로 번역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가슴 한구석에서 조용히 떠오르던 질투의 불씨가 겁잡을 수 없이 거대한 불길로 번져나가는 복수의 서사를 다루고 있다. 임소라 교수가 옮긴 책으로는 '절벽에서 첫소를 떨어뜨린 이유', '실 끝에 매달린 주앙' 등이 있고, 지은 책으로는 '원시와 침단이 공존하는 나라 브라질 이야기' 등이 있다.



**신근혜 태국어과 교수,
역서 '그림의 이면' 출간**

우리 대학 태국어과 신근혜 교수가 역서 '그림의 이면'(을유문화사)를 출판했다. 을유세계문학전집 122번째 작품으로 태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씨부라파의 대표작이다. 이 작품은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태국 문학의 위대한 성취로, 태국의 정치적 격변기를 거처에 두고 이뤄지지 않은 불멸의 사랑을 그려낸 장편 소설이다. 드라마와 영화, 뮤지컬로도 재탄생하며 오늘날 태국 문학의 가장 대표적이면서 대중적인 걸작으로 손꼽힌다. 신근혜 교수가 옮긴 책으로는 'Ditto'(동감), '베트남 전쟁과 태국군(공역)' 등이 있고, 지은 책으로는 '8세기 도사: 교류의 시작과 장소의 역사(공저)' 등이 있다.



Brief News

HUFS Institutes

외국어연수평가원

2023년 상반기 외국어교육과정

구분	과정명	개강시기	2023년 상반기 교육일정
주중과정	20주 주간과정	2월, 8월	02. 06. ~ 06. 23.
	방학특별과정	7월, 1월	12. 26. ~ 2023. 01. 20.
야간과정	야간회화과정	3월, 8월	03. 07. ~ 05. 30.
주말과정	주말특별과정	3월, 8월	02. 25. ~ 06. 10.

외국어연수평가원은 기초부터 고급까지 실용 외국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다양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언어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마인어, 아랍어 등으로, 언어별 적정 인원 모집 시 개강한다. 주요 교육과정은 말하기·쓰기·듣기·읽기를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20주 주간과정, 단기간 실용 회화 능력을 집중 향상시키는 야간과정, 실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주말에 진행되는 주말특별과정, 여름과 겨울방학에 단기과정으로 진행되는 방학특별과정 등이다.

문의 02-2173-2515, 2524, 2525 **홈페이지** <http://fittc.hufs.ac.kr>

기관/기업체 위탁 교육과정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연간 40개 이상의 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과 소속 임직원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은 위탁 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설하며, 의뢰 기관의 교육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위탁 기관의 특성과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어 교육과정으로 설계 및 제공된다. 현재까지 인사혁신처,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화재에니카손사, 롯데인재개발원, 한화그룹, KEB하나은행, 현대중공업 등 많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공기업을 비롯해 국내 유수의 그룹과 기업체 등의 위탁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특히 과정 이수 후 교육 성과 및 만족도 면에서 높은 평가로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문의 02-2173-2515 **홈페이지** <http://fittc.hufs.ac.kr>

스페인어 자격시험 DELE

DELE는 스페인 교육 및 직업훈련부의 이름인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Instituto Cervantes)이 수여하는 권위 있는 공인자격증으로, 스페인어의 언어적 능력과

경쟁력을 증명한다. 한국외대는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과 협정을 맺은 DELE 시험 시행기관으로, 연 3차례(5월, 7월, 11월) DELE 자격시험을 진행한다. 시험을 통해 획득한 DELE 자격증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
문의 02-2173-2498 **홈페이지** <http://dele.hufs.ac.kr>

세르반테스 교실(Aula Cervantes) 스페인어 강좌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Instituto Cervantes)과 협력해 교내에 세르반테스 교실(Aula Cervantes)을 개설, 스페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스페인어 일반어학과정(A1~C2), DELE 시험 대비반(A2~C1), 단기특강(DELE 등, DELE구술대비반, 비즈니스/여행/취구 스페인어) 등 모든 강좌는 전문 원어민 강사가 지도한다. 평일과 주말에 모든 과정이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의 02-2173-3593 **홈페이지** <http://seul.cervantes.es>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ulaCervantesSeul>

서울평생교육원

통번역기초과정

서울평생교육원은 통번역센터와 협업해 ‘통번역기초과정’을 운영한다. 2014년부터 개설해 현재까지 400여 명이 수강한 통번역기초과정은 한국외대의 통번역 교육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며, 통번역의 기초 기술을 학습함으로써 외국어 구사력을 종합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9개 언어에 대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며 연 2회, 3월과 9월에 개강한다. 통번역에 관심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문의 02-2173-2524 **홈페이지** <http://edulife.hufs.ac.kr>

재테크과정

서울평생교육원은 2022년 하반기부터 지역 사회 주민, 재학생, 동문 등을 대상으로 재테크과정을 신설해 1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현재 2기를 모집하고 있다. 재테크 과정은 ‘내 집 마련부터 건물주 되기 전략’과 ‘부동산 실전 경매 입찰대비반’ 과정으로 운영되며, 부동산 실전 투자에 관심 있는 학생과 지역 주민을 비롯한 성인 누구나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지방에 거주하거나, 퇴근 시간 이후 수업 참여를 원하는 직장인 교육 수요자의 요청을 수렴해 2기는 온/오프라인 병행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평생교육원은 향후 재테크과정 이외에 유아동 자녀 부모 대상 과정, 진로·진학 상담 과정 등을 개설해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02-2173-2524 **홈페이지** <http://edulife.hufs.ac.kr>

FLEX센터

2023년 FLEX 정기시험 일정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시험은 우리 대학이 수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관리하는 전문적인 외국어 능력 시험으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다. 현재 주요 7개 언어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의 정기 시험을 연 4회, 3개 영역(듣기·읽기, 쓰기, 말하기)으로 나눠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FLEX는 모든 평가 언어가 듣기읽기 영역에서 국가공인자격을 획득, 대내외적으로 신뢰도와 변별력이 높은 시험으로 우수성을 높게 평가받는다.

문의 02-2173-2529, 2532 **홈페이지** <http://flex.hufs.ac.kr>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발표일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1회	02. 16 ~ 02. 22.	03. 19.	04. 07.	04. 21.
2회	04. 27 ~ 05. 03.	05. 28.	06. 16.	06. 30.
3회	08. 10 ~ 08. 16.	09. 10.	09. 29.	10. 13.
4회	10. 05 ~ 10. 11.	11. 05.	11. 24.	12. 08.

기관 맞춤형 외국어 능력 평가 상시 시행

FLEX센터는 기업체, 정부, 공공기관, 학교, 학원, 단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과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외국어 능력 평가를 상시 시행한다. 이 시험은 기존의 정형화된 시험과 달리 의뢰 기관에서 시험 내용, 시행 일정 등을 자유롭게 지정해 진행할 수 있다. FLEX센터의 외국어 능력 평가는 국내 주요 정부기관, 공기업,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체에서 채용, 인사 고과, 승진, 해외 파견 대상자 선발 등에 폭넓게 활용한다.

문의 02-2173-2530 **홈페이지** <http://flex.hufs.ac.kr>

TESOL전문교육원

2022년 후기(40기) 영어세미나(Practicum) 진행

TESOL전문교육원은 12월 26(월)일부터 2023년 1월 7일(토)까지 총 2주간 학기의 마지막 과정인 영어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어세미나는 지난 한 학기 동안 TESOL 연구과정을 수강했던 21명의 학생들이 그동안 배웠던 이론을 직접 교수님들과 다른 학생들 앞에서 시연하고 평가받는 마지막 평가 과정이다.

2023학년도 전기(41기) 교육생 일반/특별전형 모집 진행
TESOL전문교육원은 2023년 3월 6일(월) 개강을 목표로 하는 2023학년도 전기 과정생 일반전형 모집을 진행했다. 2022년 10월 31일(월)부터 1주일간 원서 접수를 진행했으며, 2022년 11월 13일(일)에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진행했다. 면접전형은 영문 자료 읽기와 영어 인터뷰로 진행됐고, 이 과정을 통과한 20여 명이 내년 전기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2023학년도 전기(41기) 특별전형은 다가오는 2023년 1월 2일(월)부터 9일(월)까지 1주일간 원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학년도 후기(40기) 채용설명회 개최

TESOL전문교육원은 다가오는 12월 12일(월)부터 13일(토)까지 2022학년도 후기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어학원인 DYB 최선어학원과 2022년 3월 개원한 한국외대 부설 HIFS 어학원, 외대 어학원, 폴리어학원이 참여한다. 이를 동안 진행되는 채용설명회는 업체 내력, 업무 내용, 처우 등을 소개하고 참가자가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업체마다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기관은 취업률을 높이고, 학생에게는 넓은 취업의 길, 업체에는 인재 획득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채용설명회는 분기마다 개최된다.

한국어문화교육원

기술학기 한국어 정규과정 및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 과정 운영

한국어문화교육원은 연 4회, 10주로 구성된 한국어 정규과정과 고급 한국어 구사를 위한 필수 과정인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번 가을 학기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철저한 방역을 거쳐 전면 대면 수업을 실시했으며,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다. 우리 교육원에는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권 국가 외에도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50여 개국의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교육받고 있으며,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말하기 중심’의 수업으로 외국인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문의 02-2173-2262

국제사회교육원/영재교육원

2022년 한화토탈에너지스 인턴십B 과정 운영

국제사회교육원은 한화토탈에너지스 임직원을 대상

Brief News

HUFS Institutes

으로 중국어, 영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중국어 초급과정은 9월 19일(월)~11월 11일(금), 영어 고급과정은 10월 4일(화)~11월 11일(금)에 운영됐다. 영어 중급과정은 10월 31일(월)~12월 23일(금)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본 교육은 한화토탈에너지스 해외 접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지 및 업무 적응을 위한 실무 특성화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업무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학습 및 연습을 통해 현지어로 소속사 소개와 가치를 전달할 수 있게 비즈니스 표현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이다.

문의 031-330-4808

2022년 하나은행 글로벌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국제사회교육원은 10월 15일(토)~12월 30일(금) 하나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본어와 중국어를 주종 비대면, 주말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본어 1개반, 중국어 2개 반을 운영 중이며, 수강생 레벨에 맞춰 학급을 구성했다. 이 교육을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과제 수행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해당 언어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문의 031-330-4808

2022년 삼양홀딩스 주재원 이문화 특강

국제사회교육원은 11월 23일(수) 삼양홀딩스 주재원 이문화 특강을 진행했다. 해당 과정은 삼양사와 삼양패키징 임직원을 대상으로 헝가리와 미국 주재원 파견 시 유익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교육생들은 헝가리어와 영어 어학 콘텐츠를 소화하는 한편 수업 중 진행되는 다양한 이문화 콘텐츠를 통해, 지역 비즈니스시 활용하게 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업으로 복귀해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를 진행하게 된다.
문의 031-330-4809

2022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월드클래스 CEO 아카데미 특강

국제사회교육원은 9월 20일(화)과 10월 27일(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월드클래스 CEO 아카데미 특강을 진행했다. 해당 과정은 2011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393명이 수료한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은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CEO 및 차세대 리더를 대상으로 중국과 베트남 두 개 국가를 중심으로 언어 수업은 물론 해당 국가의 지역 사정 및 이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특강으로 진행됐다.

문의 031-330-4809

2022학년도 영재교육원 정규과정 종료

영재교육원은 12월 3일(토) 산출물 발표를 끝으로 총 16회차의 정규과정을 마무리한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생으로 구성된 영재교육원은 지난 3월부터 능력에 맞게 다양한 영어 및 수학 콘텐츠를 접하며 한국외대 영재교육원만의 특성화된 커리큘럼을 소화했다. 산출물 발표회에서는 재원생 모두가 1년 동안 갈고 닦으며 준비한 성장의 결과물을 공개 발표하며, 학부모님들의 참관하에 진행된다. 이후 2023년 1월 7일(토) 수료식을 끝으로 2022학년도 영재교육원 정규과정을 마무리한다.

문의 031-330-4910

2023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영재교육원은 2023학년도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전형을 진행했다. 2023학년도 모집 과정은 영어 초등 4/영어 초등 5·6/영어 중등 1·2/수학 초등 5·6 4개 과정으로 각 과정 15명, 총 60명을 선발했다. 이번 연도 지원자의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로 658명이 지원해 약 11:1의 경쟁률을 보였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60명의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최종 선발된 60명은 2023년 3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각 교육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문의 031-330-4910

통번역센터

국내 최고의 통번역 서비스 제공

통번역센터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및 학부와 연계해 최정상급 다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역은 매년 260여 건 이상, 17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태국어, 이탈리아어, 터키어, 히브리어, 캄보디아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번역은 매년 1,800건 이상 18개 언어(영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포르투갈어, 터키어, 이탈리아어, 미얀마어, 히브리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의 전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02-2173-2566, 2569 **홈페이지** <http://hufscit.com>

HUFS Books

지식출판콘텐츠원

새로 나온 책

한국 외교의 길, 석학들이 답하다

이 책은 한국 외교의 틀과 방향에 대한 고견을 토대로 구성된다. 역은이 황재호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위상과 외교의 상대적 자율성을 활용해 국익과 민생을 우선하는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제 한국의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과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선진 실용 외교를 펼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의 강요된 양자택일의 관점을 지양해야 하며, 국내 정치의 정쟁 구도와 이념적 편향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황재호 / 206면 / 신국판 / 19,000원



들뢰즈의 시네오시스

들뢰즈의 「시네마」를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접근법을 제시한다. 제장은 들뢰즈의 「시네마」 1과 2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 분류인 운동-이미지와 시간-이미지를 다룬다. 들뢰즈는 그것을 이미지의 두 체제라고 명명하며, 이 두 체제의 철학적 배경으로 베르그손과 퍼스를 언급한다. 따라서 제장은 베르그손의 이미지와 지속, 퍼스의 세미오시스가 어떻게 이미지의 두 체제인 운동-이미지와 시간-이미지를 구축하는지 설명한다.

데이비드 디머 David Deamer / 김형래 옮김 / 618면 / 신국판 / 27,000원

셰익스피어와 걱정의 드라마

르네상스 시기의 걱정은 중세 기독교 문화에서처럼 더이상 최악의 온상이자 기피의 대상만이 아니다. 걱정이 있어 르네상스 인간은 그의 독특한 개별성을 확보하며, 동시에 이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는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의 주인공들은 그들이 보여주는 걱정으로 인해서 결코 패배라고만 단정할 수 없는 삶의 궤적을 남긴다. 셰익스피어는 인간을 걱정의 동물로 파악함으로써 각 개인이 자신의 정서 영역 안에서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임을 확인한다.

박우수 / 356면 / 신국판 / 21,000원



시길로 전자책 만들기

현대 사회는 문화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디지털을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 책의 첫 장을 보는 독자도 자신만의 콘텐츠를 적극적인 자세로 직접 만드는 '참여 이용자'일 것이다. 이 책은 크기는 스마트 환경과 콘텐츠, 전자책의 이해, HTML의 기초부터 Sigil을 통한 ePub2, ePub3의 도출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HTML5, CSS3, JavaScript 등을 통해 다양한 매체 중 APP, WEB, ePub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 기능을 할 것이다.

이한나 / 192면 / 크라운판 / 19,000원



일본어 고전문법

일본어 고전문법은 일본의 고어를 알고 고문을 읽기 위해 알아야 하는 어법들이다. 일본 문화를 심도 있게 알려면 고전 문헌을 읽는 힘이 필요하다. 일본 고전을 직접 읽는다는 것은 일본 문화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자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다. 일본 관련 학문을 전공하거나 일본 어문학과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 애니메이션과 만화, 게임 등 대중문화에 쓰인 언어 표현을 심도 있게 이해하려는 사람이 두루 볼 수 있는 책이다.

한미경 · 권경애 · 박현정 / 276면 / 46배판 / 21,000원



태국어 표준 교재 A2 워크북

「태국어 표준 교재 A2 워크북」은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초급 단계의 태국어 사용을 교육하고 연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국어 표준 교재 A2」와 부합하도록 집필됐다. 단원별 내용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어휘, 대화문, 문법, 예문을 비롯해 연습 문제와 해답으로 구성된다. 이외에 각 단원에서 사용한 어휘를 따로 모아 색인으로 찾아보기 쉽게 알파벳 순으로 정리해 부록과 함께 수록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 278면 / 46배판 / 27,000원



게임으로 배우는 영어 회화

이 책은 14주의 훈련을 통해 능동적인 영어 회화를 할 수 있게 돕는다. 게임 상황에서 원어민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학습자는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을 익힐 수 있다. 자신의 실력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와 시험을 마련했고, 원어민이 직접 녹음한 MP3 파일을 통해 130여 개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했다. 훌륭한 놀이 상대로서 학습자의 영어 지식을 영어 능력으로 이끌어준다.

조기석 / 360면 / 크라운판 / 18,000원



동사 65개로 끝내는 베트남어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의 강의를 토대로 집필한 교재로, 오늘의 단어와 문장, 문법, 읽기로 구성된다. 학습자가 오늘의 단어와 문장, 읽기까지 순서대로 학습하거나 필요에 따라 선택해 학습할 수 있다. 기초 베트남어를 공부한 학습자가 현지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익히고 습득할 수 있게 원어민 선생님의 검수를 통해 원어민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읽기를 구성했다. 강의에서 부족했던 문법 설명과 연습 문제는 교재를 집필하면서 보완했다.

이현정 / 282면 / 46배판 / 25,000원



몽골어 표준 교재 A2

이 교재는 국책 사업인 2020년 특수외국어교육진흥법의 특수 목적 교재 개발의 일환으로, 몽골어를 전공하는 학생과 일반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려는 목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몽골어과에서 집필했다. 몽골어 A1 등급(입문)을 수료한 학습자가 실용적인 몽골어 학습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매 단원 관련 문법 내용을 요약해 제시했으며, 학습한 내용을 학습자 스스로 복습할 수 있게 연습 문제 및 실용적인 문형을 평이하게 기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김기선, Ulziibat Dorj / 264면 / 46배판 / 23,000원



쑹쑹! 초급 라오스어

라오스인의 한국어 학습에 대해 다년간 연구하고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에서 라오스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저자가, 라오스어의 언어학적 특징과 한국어와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해 한국인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집필한 라오스어 교재다. 총 15과로 구성되며, 라오스어 학습의 기본이 되는 네 가지 요소인 발음, 문법, 회화, 어휘의 기초를 배울 수 있게 배치했다. 「문화 들여다보기」 코너를 통해 라오스의 전통과 사회, 문화도 알려준다.

김수은 / 312면 / 46배판 / 23,000원



다시 해외로. 다시 외국어.

사이버한국외대 신·편입생 모집

모집일정 1차 22.12.1(목) ~ 23. 1.11(수)
2차 23.1.30(월) ~ 23. 2.15(수)

모집학부·학과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마케팅·경영학과
산업안전학과
다문화·심리상담학과

입학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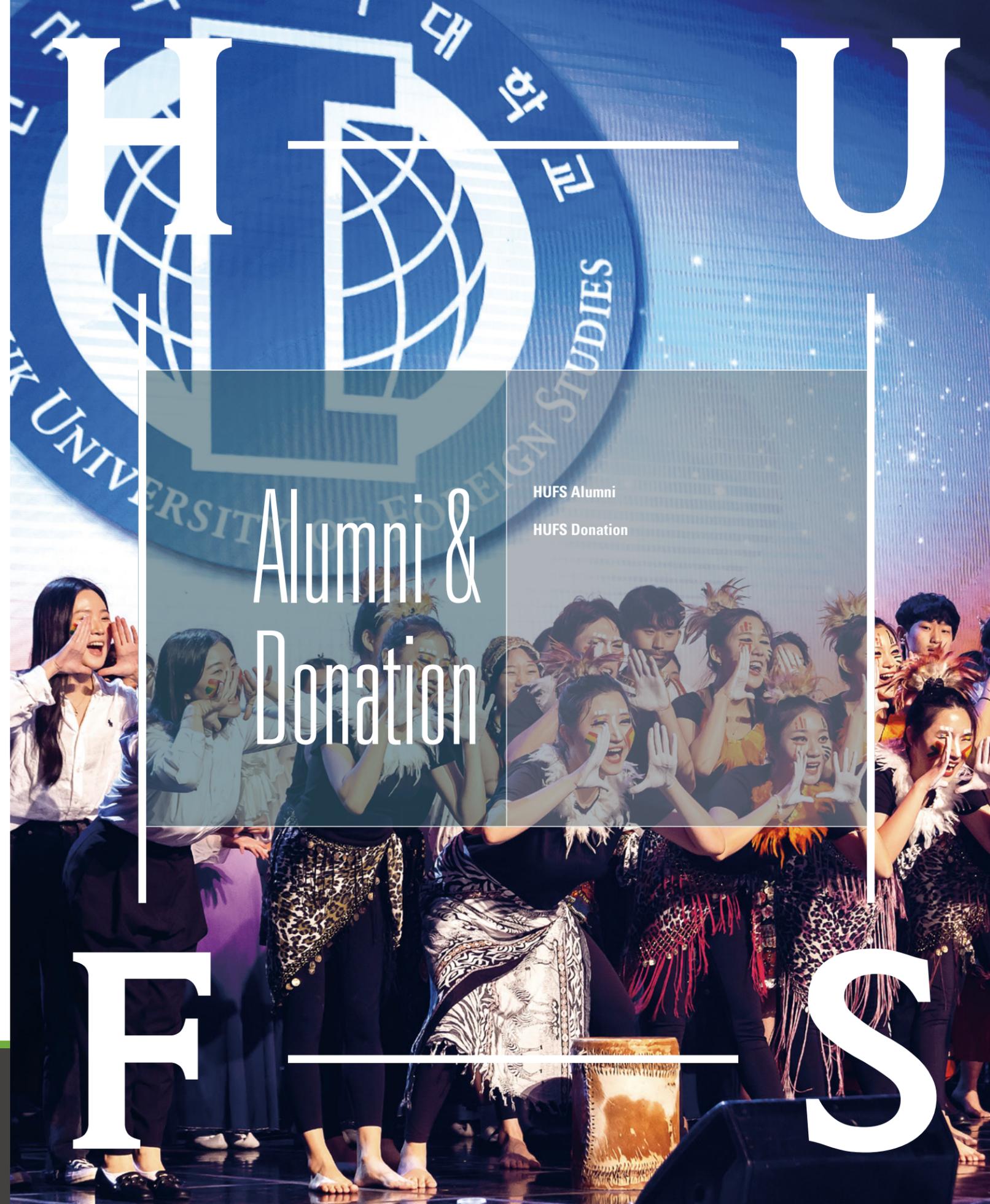
02-2173-2580
TALK ID. cufs

입학지원센터



한국외대 동문·교직원(가족) 대상 장학 혜택

동문장학금 한국외대 학부 졸업자 및 2촌 이내 가족(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25% 감면)
외대복지장학금 한국외대, 부속외고 재직 중인 교직원 및 자녀(전액 감면), 배우자(50% 감면)



H U

Alumni & Donation

HUFS Alumni
HUFS Donation

F S



네덜란드어과 홀커밍데이
- 11월 10일(목), BRICS 문화관



포르투갈어과 예술제
- 11월 18일(금), 사이버관 대강당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홀커밍데이
- 11월 18일(금),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ITC 총회 및 송년회
- 11월 24일(목), 라마다 서울 동대문 호텔



인도어과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 11월 25일(금), 더플라자 호텔



이탈리아어과 홀커밍데이
- 11월 25일(금), 본관 13층 스카이라운지

학과/단위 동문회 활발한 교류 재개하며 연말 모임 개최

학과와 단위 동문회들이 연말을 맞아 모임을 통한 교류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 각 학과, 단위별로 조직된 동문회들은 11월부터 연말 송년 모임을 갖고 친목을 다져왔는데,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대면 행사를 하지 못하다가 올해 연말연시에는 다시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11월 10일(목) 네덜란드어과(학과장 문지희 교수)는 '2022 홀커밍데이'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이날은 에바 위트먼(Eva Witteman) 주한 네덜란드 부대사 특감, 재학생 네덜란드어 스피치 대회, 동문 장학금 전달식이 이어지며 뜻깊은 시간이 됐다. 18일(금)에는 포르투갈어과(학과장 이승용 교수)의 예술제가 개최됐다. 포르투갈어과는 이날 총동문회 장학금 수여식,故 에드송 교수님을 기리는 에드송 카르페데엠 장학금 수여식, 학과 내 소모임인 음악 동아리 공연, 원어 연극반 공연, 시사 토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같은 날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학과장 서명교 교수)는 '2022 홀커밍데이'를 개최했다. 세대를 초월한 60여 명의 동문, 재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한길장학금 수여식, 만찬, 학과 뉴스레터 <MAIN-ed(마인드)> 소개 등 다양한 행사들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4일(목)에는 한국외대 국제무역인클럽(ITC, 회장 윤상기(스페인어 73)) 선후배들이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총장과 총동문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특별히 이석배(노어 73) 前 러시아 대사를 초청해 외교 현안에 관한 특강을 진행해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 25일(금)에는 인도어과(학과장 고태진 교수)가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총장, 주한인도대사, 인도문화원장을 비롯해 동문, 재학

생 등 1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 주 외무부 장관의 축하 메시지와 동문 장학금 등의 행사가 이어졌다. 도서관 힐라이쿠슈네트홀에서 힌디어 스피치 대회, 인도 국가 부르기 대회가 열려 수상팀 학생들에게 상금과 주한인도문화원장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또한 같은 날엔 창립 60주년 준비를 위한 이탈리아어과 홀커밍데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1회 졸업생부터 최근 졸업생까지 60여명의 선후배들이 모여 이탈리아어과의 역사와 현재,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학과 창설 60주년 장학금과 이탈리아어과 학과 발전기금에 대한 모금을 시작했다.

12월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동문회도 송년회를 기약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뉴욕 G-CEO 동문회를 시작으로 남가주동문회, 남가주 G-CEO 동문회, 뉴욕동문회에서 성공적인 송년회를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5일(월)에는 재직동문교수회 행사, 9일(금)에는 우리 대학 영자신문사 디아거스(The Argus) 동문회, 송년회, 총학생회 졸업 동문 모임인 '민주동문회' 송년회가 열린다. 10일(토)에는 인도네시아 동문회도 현지에서 모임을 준비하고 있으며, 경영대학원 총동문회도 경영인의 밤 행사를 통한 반가운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지역대학원 중남미학과와 러시아학과도 송년 모임을 준비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외대인론인모임(외인회)', '여성동문회' 등 외대의 대표적인 동문회도 서로 즐거운 약속을 하고, 모교의 추억을 함께한 동문들과 한 해 마무리를 할 예정이다.

모임에 참석한 여러 동문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성사된 만남인 만큼 동문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의 소중함을 느낀 자리가 됐고,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교류로 친목과 우애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동문 출간



김경섭 동문, (주)신세계사이먼 신임 대표이사로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이끌어

지난 10월 27일(목) 우리 대학 김경섭(법학 85) 동문이 신세계그룹 정기 임원 인사에서 (주)신세계사이먼의 신임 대표로 선임돼 신세계프리미엄 아울렛을 이끌어 왔다. 김경섭 대표는 1992년 (주)신세계백화점에 입사하며 신세계그룹의 일원이 됐다. 이후 ▲백화점 부문 경영지원실 기업윤리 실천사무국 부장 ▲패션 담당 해외패션팀 수석 ▲해외잡화 담당 상무 ▲상품본부장 전무 ▲신

세계디에프 상품본부장 전무 등을 역임했다.



윤경로 동문, 올림픽 운동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IOC쿠베르탱 메달 수여

지난 10월 21일(금) 우리 대학 윤경로(영어 76)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이 Thomas Bach IOC위원장으로부터 쿠베르탱 메달(Pierre de Coubertin)을 수여받았다. 윤 원장의 40년간의 국제 스포츠 외교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쿠베르탱 메달은 1964년 제정 이래 수상자가 25명에 불과하며, 이 메달을 IOC위원장이 우리나라 스포츠 인사에게 전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원장은

1988년 서울올림픽이 유치되면서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를 시작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및 개최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2004년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을 개설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 스포츠 분야에서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치며 외대인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외대 동문 3명, 베트남 현지 대학교수로 임용

지난 11월 21일(월) 베트남산업상업대학교(Vietnam Vocational College of Industry and Commerce, VVIC) 베트남어학과에 우리 대학 동문 세 명이 교수로 임용됐다. 권세라(그리스·불가리아학 10,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박사 수료), 윤희두(그리스·불가리아학 05, 대학원 사학과 박사), CHU THI CUC(일본대학원 국제관계학과 박사 수료)가 주인공이다. 세 동문은 현지 대학에서 신진 연구·교육자로서 활약하게 됐다. 또한 최근 한국인들의 베트남 현지 취업과 생활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인 대상 베트남어학 강좌를 운영, 현지 체류에 도움을 제공하며 세계 속의 외대인으로서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윤희영(통번역대학원 한영서 83) 역
골프 멘탈의 정석
(샘터사)



박재형(불어교육 86, 대학원 정치외교(석) 06, (박) 09)
AI는 중립적인가?-과학기술과 정치
(도서출판 지성사)



권지현(통번역대학원 한불과 90) 역
벌레 팬클럽
(씨드북)



박병철 회장, 백창호 회장, Kevin S. Kim 회장,

미주 동문 세 명이 힘 모아 학교 발전기금 30만 달러 기부

지난 10월 31일(월) 미주 동문 박병철(국제통상 67) Everest Trading Corp. 회장, 백창호(영어 72) Nara Trading Inc. 회장, Kevin S. Kim(영어 76) Bank of Hope 은행장이 가족과 함께 모교를 방문해 외대의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며 학교 발전기금 10만 달러씩을 기부했다. 이날 모여진 기금은 총 30만 달러에 이른다. 박정운 총장, 장태엽 재무대외부총장, 가정준 대외협력처장, 미주 동문 박병철 회장 내외, 백창호 회장 내외, Kevin S. Kim 회장 내외가 참석하였으며, 특별히 박병철 회장과 친분이 있는 김경문 전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 감독 내외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어 서울캠퍼스의 곳곳을 돌아보는 캠퍼스 투어 시간에는 대학본부 1층 영예의 전당, 과거 미네르바 동산의 터, 박병철 회장이 기증한 미술품 전시 장소, 스마트도서관의 여러 곳을 돌아보며 학창 시절 캠퍼스에서의 추억을 회상하고 최근 변화된 학교의 모습을 직접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성희 현마육영재단 이사장, 총 기부액 10억원 넘어

이성희(정치외교 64) 현마육영재단 이사장의 우리 대학 기부금이 총 10억원을 넘었다. 1994년 학교 발전기금 3천만원으로 시작된 이 이사장의 기부는 현재까지 총 10억원이 넘는 큰 뜻으로 이어졌다. 10억원 중 7할 이상이 장학금일 정도로 이 이사장의 국가 인재 양성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현마육영재단은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에 놓인 학생들에게 입학부터 졸업까지 4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매 학년도 기수

별 2~5명의 장학생을 신규로 선발해 총 40명의 학생에게 총 7억5천만원에 이르는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는 현재까지 연인원 104명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연평균 6천여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다. 그 결과 현마 장학생들은 졸업 후 공공기관 및 국내·외 우수 기업 입사,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진출 등의 목표를 이뤄 국가의 인재로 성장했다. 이성희 이사장의 모교 사랑과 인재 양성의 철학이 담긴 기부는 앞으로도 매년 계속될 것이다.



제13회 외대재직직원장학금(씨앗) 수여식 개최

지난 9월 21일(수) 서울캠퍼스에서 제13회 외대재직직원장학금(씨앗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됐다. 서울캠퍼스, 글로벌캠퍼스 각 2명씩 총 4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등록금 지원이라는 장학금 본연의 취지를 살리되 학업 성적은 물론 다양한 교내외 활동 참여도를 반영해 장학생을 선발했다. 이날 수여식에 참여한 교직원들은 앞으로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구성원들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했다. 외대재직직원장학금(씨앗장학금)은 우리 대학에 근무 중인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학업과 꿈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시작해 현재까지 매 학기 양 캠퍼스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

한국외대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명	구분	금액(원)
강동희	17학번	20,000
강영구	90학번	200,000
강영남	93학번	20,000
강소영	02학번	1,000,000
김지혜	04학번	20,000
고경숙	01학번	20,000
고광현	81학번	1,200,000
고영무	93학번	100,000
고태수	07학번	20,000
고혜섭	11학번	60,000
고혜수	16학번	20,000
공병훈	11학번	60,000
곽태석	77학번	20,000
곽태환	57학번	13,451,275
권민구	02학번	20,000
권서영	19학번	20,000
권성욱	79학번	20,000
권영아	91학번	20,000
권준호	93학번	60,000
권혁수	94학번	100,000
김경민	01학번	60,000
김경희	90학번	300,000
김기수	87학번	50,000
김남규	18학번	10,000
김남희	07학번	500,000
김대운	99학번	20,000
김대호	91학번	40,000
김대희	11학번	60,000
김도현	18학번	20,000
김미경	84학번	100,000
김민정	19학번	20,000
김민정	99학번	20,000
김민주	16학번	20,000
김범수	92학번	20,000
김병진	79학번	40,000
김보라	09학번	100,000
김상원	86학번	20,000
김선주	74학번	40,000
김성현	89학번	10,000,000
김세익	15학번	150,000
김수현	17학번	92,300
김승수	87학번	60,000
김승영	86학번	200,000
김용빈	89학번	20,000
김용정	95학번	167,500
김용진	89학번	60,000
김용현	89학번	40,000
김유정	03학번	20,000
김유현	10학번	60,000
김은정	93학번	20,000

성명	구분	금액(원)
김은정	94학번	20,000
김이선	16학번	20,000
김익중	84학번	2,000,000
김지영	11학번	60,000
김종윤	90학번	20,000
김종호	89학번	11,216,092
김주영	20학번	20,000
김준영	93학번	40,000
김지숙	15학번	20,000
김지은	04학번	20,000
김지환	04학번	20,000
김진기	83학번	50,000
김진영	08학번	1,000,000
김태림	20학번	20,000
김태우	17학번	20,000
김태형	17학번	10,000
김현수	16학번	20,000
김현신	99학번	20,000
나도연	83학번	20,000
나인애	08학번	10,000
남한솔	16학번	20,000
노건영	99학번	40,000
노일현	09학번	20,000
노지영	91학번	20,000
류동호	89학번	20,000
류재욱	95학번	10,000
류재봉	57학번	20,000
문관식	08학번	60,000
문종혁	19학번	20,000
문현성	98학번	20,000
민경웅	97학번	1,000,000
민희창	01학번	20,000
박기정	80학번	100,000
박남호	92학번	20,000
박대연	07학번	30,000
박영금	82학번	50,000
박미진	93학번	100,000
박상준	93학번	30,000
박선중	81학번	20,000
박성수	87학번	50,000
박성호	96학번	10,000
박수원	00학번	40,000
박용운	19학번	20,000
박용현	95학번	20,000
박원복	79학번	60,000
박은주	93학번	40,000
박장식	79학번	500,000
박재진	74학번	4,000,000
박재홍	14학번	20,000
박종성	14학번	20,000

성명	구분	금액(원)
박지영	99학번	20,000
방현미	95학번	500,000
배석주	90학번	40,000
배은경	02학번	20,000
배은석	07학번	300,000
백승연	12학번	20,000
백인구	92학번	10,000
부중환	71학번	20,000
상연진	02학번	40,000
서기원	81학번	20,000
서유경	92학번	60,000
서정미	13학번	500,000
손관주	18학번	20,000
손세준	05학번	20,000
손재용	87학번	100,000
송대현	86학번	40,000
송원영	14학번	20,000
송원재	77학번	500,000
송철준	74학번	20,000
송치민	93학번	20,000
송현우	15학번	40,000
신나라	14학번	500,000
신민하	97학번	40,000
신아람	11학번	20,000
신연재	81학번	10,000
신용교	19학번	100,000
신윤경	08학번	20,000
신윤철	04학번	20,000
신인선	11학번	60,000
신정현	02학번	20,000
심찬	03학번	40,000
안상범	98학번	40,000
안우혁	19학번	20,000
안진서	22학번	10,000
양언우	97학번	40,000
엄홍길	02학번	20,000
여민기	18학번	20,000
염철	88학번	100,000
오성식	79학번	100,000
오성진	04학번	20,000
오소정	12학번	150,000
오윤	03학번	20,000
오정훈	06학번	60,000
오창엽	85학번	20,000
우재민	71학번	40,000
유근혁	11학번	60,000
유민경	13학번	20,000
유시영	84학번	20,000
유영미	82학번	60,000
유은찬	20학번	20,000

Donation News

HUFS Donation

2022. 09. 01. ~ 2022. 11. 30.

기부자님께서 보내주신 애정과 격려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성명	구분	금액(원)
유재형	96학번	20,000
유정은	05학번	20,000
유진규	11학번	20,000
윤선수	14학번	20,000
윤진선	02학번	100,000
이동만	83학번	50,000
이동원	01학번	40,000
이동원	18학번	30,000
이동철	87학번	50,000
이사우	17학번	20,000
이상량	67학번	300,000
이상식	79학번	60,000
이서울	07학번	1,000,000
이상배	98학번	20,000
이상조	77학번	20,000
이수연	06학번	20,000
이승현	00학번	20,000
이승조	78학번	20,000
이영도	81학번	20,000
이영우	68학번	5,000,000
이영화	68학번	20,000
이예지	16학번	20,000
이육성	76학번	40,000
이용권	80학번	20,000
이용술	82학번	20,000
이유림	19학번	20,000
이은순	73학번	20,000
이장일	88학번	20,000
이재호	04학번	20,000
이재홍	88학번	60,000
이정균	11학번	100,000
이정보	15학번	20,000
이정은	88학번	1,000,000
송영우	03학번	100,000
이태우	07학번	600,000
이종섭	80학번	20,000
이종현	16학번	100,000
이준희	86학번	100,000
이지연	95학번	20,000
이준희	78학번	2,000,000
이택규	17학번	20,000
이하나	02학번	20,000
이한나	11학번	500,000
이현식	11학번	60,000
이혜경	91학번	20,000
이호경	91학번	20,000
이효용	83학번	20,000
이화량	96학번	20,000
이후인	21학번	20,000
이희라	97학번	40,000

성명	구분	금액(원)
이화섭	86학번	50,000
이화성	89학번	20,000
임동우	61학번	20,000
임은숙	83학번	40,000
임재복	82학번	20,000
임정복	90학번	100,000
임종부-이영희	70학번	10,000,000
임형준	18학번	20,000
정민	85학번	1,000,000
정삼환	87학번	20,000
장산호	18학번	20,000
장일범	87학번	30,000
전금석	04학번	20,000
전별	11학번	60,000
전상철	76학번	100,000
전소연	93학번	500,000
장구승	08학번	1,000,000
장남진	69학번	13,424,078
정병호	91학번	3,000,000
정순자	91학번	20,000
정승화	99학번	20,000
정언용	91학번	20,000
정연우	77학번	20,000
정영조	74학번	300,000
정재민	81학번	220,000
정재완	88학번	200,000
정지훈	98학번	20,000
정진오	80학번	100,000
정호경	15학번	100,000
정휘영	98학번	20,000
정희용	10학번	20,000
재현수	97학번	20,000
조규태	72학번	100,000
조기석	02학번	120,000
조동식	69학번	20,000
조성욱	87학번	100,000
조수연	85학번	20,000
조용배	85학번	20,000
조원균	92학번	20,000
조인서	17학번	20,000
주디를	10학번	196,500
지연정	99학번	30,000
차은수	01학번	20,000
차현경	15학번	20,000
채이혜	98학번	20,000
천부기	97학번	20,000
최경훈	84학번	20,000
최근호	87학번	20,000
최동규	77학번	20,000
최병천	81학번	20,000

성명	구분	금액(원)
최봉실	96학번	20,000
최수연	18학번	20,000
최승엽	16학번	20,000
최연도	59학번	142,199,000
최영규	84학번	20,000
최은정	92학번	200,000
최장호	06학번	20,000
최준란	89학번	500,000
최진민	15학번	20,000
최태원	90학번	60,000
최무른하늘	17학번	10,000
최현구	83학번	60,000
추가영	04학번	20,000
태현주	18학번	20,000
하상원	74학번	100,000
하석근	95학번	20,000
하정수	81학번	20,000
하준삼	15학번	1,258,200
한나린	18학번	20,000
한윤종	77학번	100,000
한익섭	05학번	60,000
함승연	18학번	20,000
함영준	81학번	20,000
허소정	12학번	500,000
허완	78학번	60,000
허욱	94학번	20,000
현소영	14학번	20,000
홍성재	14학번	20,000
홍영표	81학번	100,000
홍원기	94학번	20,000
홍의표	00학번	20,000
홍진표	74학번	2,000,000
홍현주	82학번	20,000
황송이	05학번	20,000
황윤정	04학번	20,000
황인자	74학번	20,000
황자현	86학번	40,000
황희재	16학번	20,000
Hanafy Shima Mohamed	외대교수	60,000
가정준	외대교수	300,000
고태진	외대교수	196,500
곽새라	외대교수	240,000
곽순례	외대교수	80,000
권경애	외대교수	400,000
권기수	외대교수	60,000
권영우	외대교수	100,000
권혁만	외대교수	150,000
김경희	외대교수	450,000
김미수	외대교수	30,000
김민정	외대교수	40,000

성명	구분	금액(원)
김봉철	외대교수	1,398,165
김상범	외대교수	405,000
김용식	외대교수	250,000
김원영	외대교수	150,000
김원호	외대교수	60,000
김유경	외대교수	542,190
김정연	외대교수	30,000
김진아	외대교수	60,000
김찬완	외대교수	50,000
김현식	외대교수	30,000
김형태	외대교수	60,000
김혜진	외대교수	120,000
노명환	외대교수	105,000
명희준	외대교수	100,000
문지희	외대교수	300,000
박경은	외대교수	200,000
박기정	외대교수	60,000
박상미	외대교수	20,000
박정운	외대교수	3,420,000
박종찬	외대교수	150,000
박지완	외대교수	150,000
박홍수	외대교수	300,000
방교영	외대교수	360,000
송연식	외대교수	60,000
송준서	외대교수	20,000
신근혜	외대교수	595,074
신정아	외대교수	100,000
안인경	외대교수	30,000
양재완	외대교수	30,000
여호규	외대교수	105,000
오연	외대교수	500,000
온대원	외대교수	200,000
왕석동	외대교수	60,000
유기환	외대교수	465,000
윤성우	외대교수	1,673,100
윤승영	외대교수	300,000
윤은경	외대교수	20,000
이근영	외대교수	105,000
이보화	외대교수	450,000
이승래	외대교수	60,000
이상용	외대교수	100,000
이윤석	외대교수	600,000
이윤희	외대교수	10,000
이은구	외대교수	20,000
이인섭	외대교수	30,000
이재목	외대교수	900,000
이지연	외대교수	60,000
이지은	외대교수	60,000
이진아	외대교수	1,200,000

한국외대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명	구분	금액(원)
이창훈	외대교수	150,000
이춘호	외대교수	140,000
이태욱	외대교수	600,000
이향	외대교수	834,000
이현환	외대교수	150,000
임근동	외대교수	20,000
임소라	외대교수	937,500
임항욱	외대교수	150,000
장병익	외대교수	300,000
장은영	외대교수	40,000
정철자	외대교수	60,000
정혜연	외대교수	60,000
재성훈	외대교수	20,000
조희문	외대교수	450,000
최영수(MS)	외대교수	100,000
최요섭	외대교수	60,000
최종찬	외대교수	10,000,000
한원덕	외대교수	10,060,000
홍성민	외대교수	300,000
홍종명	외대교수	20,000
황성우	외대교수	20,000
황재호	외대교수	60,000
황지연	외대교수	60,000
김우조	명예교수	40,000
이정호	명예교수	1,000,000
장실	명예교수	20,000
최재철	명예교수	20,000
구하연	퇴직교원	2,000,000
유정화	퇴직직원	60,000
강미리	외대직원	20,000
김석중	외대직원	50,000
김원범	외대직원	20,000
김현숙	외대직원	20,000
김해정	외대직원	20,000
나영규	외대직원	60,000
문은영	외대직원	20,000
박식원	외대직원	60,000
신성호	외대직원	30,000
오성석	외대직원	30,000
육진호	외대직원	2,000,000
정원호	외대직원	150,000
최완식	외대직원	600,000
홍순혁	외대직원	750,000
황순규	외대직원	200,000
단창근	학부모	100,000
이흥자	학부모	40,000
김윤정	기타(개인)	200,000
홍내주인	기타(개인)	3,000
백창기	기타(개인)	5,000,000

성명	구분	금액(원)
진미경	기타(개인)	2,000,000
최광희	기타(개인)	20,000
형길환	기타(개인)	100,000
(재)한국외대동문장학회	동문단체	15,000,000
G-CEO 뉴욕 총원우회	동문단체	12,923,530
국제통상학과 72학번 일동	동문단체	10,000,000
재동경동문회	동문단체	3,360,500
재직동문교수회	동문단체	3,165,000
한국외대 ROTC 총동문회	동문단체	15,200,000
한국외대 사학과 동문회	동문단체	500,000
한국외대 재직직원동문회	동문단체	520,000
외대재직직원장학회(씨앗)	교내단체	2,570,000
외대축구부	교내단체	500,000
광주회관	외대사랑후원업소	200,000
(재)동화산업장학재단	기타(단체)	5,000,000
(재)상성공공장학재단	기타(단체)	15,600,000
(재)발전재단	기타(단체)	1,400,000
(재)케이티그룹희망나눔재단	기타(단체)	11,074,000
KRX국민행복재단	기타(단체)	2,000,000
공군사랑부	기타(단체)	3,855,500
노업문화재단	기타(단체)	1,100,000
덕계학술재단	기타(단체)	2,000,000
사단법인 한국민테크산업협회	기타(단체)	2,000,000
상상복지재단	기타(단체)	1,400,000
서울장학재단	기타(단체)	8,500,000
신라문화장학재단	기타(단체)	20,163,000
안산인재육성재단	기타(단체)	6,915,000
외대교회 교직원선우회	기타(단체)	4,000,000
용운장학회	기타(단체)	14,000,000
우덕재단	기타(단체)	17,792,500
인촌기념회	기타(단체)	1,400,000
일주학술문화재단	기타(단체)	300,000
재단법인 인촌	기타(단체)	1,000,000
재단법인 한국행정원재단	기타(단체)	5,310,500
충남 해군 분부	기타(단체)	6,721,000
홍산장학재단	기타(단체)	2,000,000
(주)라임스포츠(김기섭)	기타(기업)	5,000,000
(주)비지메프리트앳(CU)	기타(기업)	16,000,000
(주)센애드	기타(기업)	3,375,000
(주)알라딘커뮤니케이션	기타(기업)	42,883,440
(주)엠엘에스에스	기타(기업)	3,438,830
(주)크라프트	기타(기업)	4,000,000
국민은행 이문동지점	기타(기업)	7,000,000
법무법인(유한) 동인	기타(기업)	2,000,000
아모레퍼미넌트(송호섭)	기타(기업)	20,000
이용부동산	기타(기업)	5,000
카타리영어사	기타(기업)	1,000,000
한국유니테크트레이닝회사	기타(기업)	10,000,000
한국외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설기관	9,414,440

기부 혜택

외대 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는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기부자 예우

구분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기념품 제공	○	○	○	○	○	○	○
학교 발간 홍보물 제공	○	○	○	○	○	○	○
기부증서 증정 및 영수증 발급	○	○	○	○	○	○	○
평생 차량출입증 제공		○	○	○	○	○	○
외국어 연수 평가원 수강료 본인 및 직계가족 30% 할인		○	○	○	○	○	○
감사패 증정			○	○	○	○	○
평생 도서관 열람증 제공				○	○	○	○
대천수련원 이용시 교직원에게 준한 예우				○	○	○	○
출 명칭 동판 부착					○	○	○
홍상 부조 부착							○

● 세제혜택

1. 개인기부

소득세법에 의해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① 기부금 기탁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국세청 자동 신고

방법 ② 기부금 기탁 → 학교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수취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

2. 법인기부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 신고시 (근로소득금-이월결손금) X 50% 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시 적용되며, 손금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법인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만원)	세율(%)	예금주
2억원 이하	10%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	22%	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

※ 방법 : 기부금 기탁 → 학교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수취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제출

3. 상속재산기부

고인이 유증 또는 사인중여에 의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및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문의 : 대외협력처 발전협력팀 (전화) 02-2173-2756 (이메일) hufs5@hufs.ac.kr

QS 세계대학평가 평판도 설문위원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우리 대학은 매년 영국의 세계대학평가 기관인 QS社(Quacquarelli Symonds)의 세계대학평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QS는 전 세계 2,000여 개 대학의 운영 성과를 측정하여 매년 6월 세계대학평가 결과로 1,000여 개 대학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국에서는 약 40여 개 대학이 본 평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상위권에 랭크될 경우, 해외 우수 대학과의 교류 협정 체결과 우수 교원 확보 및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대학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QS 세계대학평가의 주요 지표로는 대학 평판도, 교육여건, 연구성과, 국제화 지표가 있으며, 이 중 평판도 설문 결과를 가장 높은 비율로 반영하여 세계 대학 순위를 발표합니다. 학계평판도는 참여자의 연구 분야에서 우수한 국내·외 대학을, 산업계평판도는 참여자의 업무 분야에서 채용을 선호하는 국내·외 대학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합니다.

현재 2023년 평가에 참여해 주실 설문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설문 위원으로 등록하실 경우, 제출하신 이메일 주소로 2023년 3~4월 중에 QS에서 직접 대학 평판도 설문조사 링크 이메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외대 가족 여러분들의 설문 참여 하나하나가 우리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디 설문위원으로 등록하시어 소중한 의견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계평판도 설문위원 등록
(국내·외 교육계 인사·교원 등)
◆상시 등록 가능



산업계평판도 설문위원 등록
(국내·외 산업계 인사·직장인 등)

◆문의 : 기획조정처 평가감사팀(02-2173-2027)





HUFS

서울캠퍼스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EL. 02.2173.2114
글로벌캠퍼스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TEL. 031.330.4114



한국외국어대학교



Global HUFS 117